

'95 북한관 통일글짓기대회 입상 작품집

통일로 가는 길



통일연수원

머 리 말

우리원에서는 금년 들어 조국광복 50주년이자 남북분단 반세기를 맞는 뜻깊은 사업의 하나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통일관과 민족공동체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초·중·고등학생 통일글짓기 대회」를 매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올해에는 부산, 인천, 광주, 제주 등 4개 지역에서 우리원이 운영하고 있는 그곳 지방북한관 주관하에 처음으로 대회를 열었던바, 1,0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등 호응도가 매우 높았을 뿐만 아니라, 작품의 수준도 우열을 가려내기가 어려울 만큼 훌륭한 글들이 많아 모두 입선시키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내년에도 많은 학생들의 참여로 더욱 풍성한 수확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금년도 입상작품 36편을 하나로 묶어 「통일로 가는 길」이라는 이름으로 발간하오니 통일후세대들에게 통일에 대한 의지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는 데 다소나마 이바지하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이번 통일글짓기 대회에 참여한 학생들과 훌륭한 작품을 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지도교사님, 그리고 심사위원님과 유관기관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1995년 12월

통일연수원장

차 례

부 산 북 한 관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상	초등부: 통일을 위하여 내가 할 일/정희라9
	중등부: 미래의 통일기념대/조기영12
	고등부: 다시 해 뜨는 그날까지/이승후15
부산광역시 교육감상	초등부: 자유의 집/전수진18
	중등부: 단군과 통일/윤소희20
	고등부: 너, 나 그리고 우리/김윤정22
통일연수원장상	초등부: 북한에 사는 친구에게/김형주24
	중등부: 통일전망대에 올라/강현명27
	고등부: 그렇게 몇해가 흘러갔습니다/구현정 ...29

인 천 북 한 관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상	초등부: 통일을 향하여/김연수35
	중등부: 자유바람/백지형41
	고등부: 통일의 그날/차민우44
인천광역시 교육감상	초등부: 자유바람/여행운48
	중등부: 통일이 오면/정신구51
	고등부: 북한관에서/박윤미54
통일연수원장상	초등부: 북한에 있는 내 또래의 아이에게/이유정 ...59
	중등부: 북한관에서/서미진61
	고등부: 북한관에서/이지현65

광 주 북 한 관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상	초등부:북한학생들에게 보내는 글/김승지71
	중등부:통일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이용재73
	고등부:통일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이선화 ...76
광주광역시 교육감상	초등부:비무장지대의 메아리/편재희79
	중등부:통일로 가는 길/김두희80
	고등부:통일을 위한 노력/윤세민83
통일연수원장상	초등부:북쪽의 친구에게/김슬기86
	중등부:내안에 심은 통일의 씨/윤아롱89
	고등부:그날/황정은91

제 주 북 한 관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상	초등부:할아버지의 웃음/박은희95
	중등부:할머니를 위해서/한은정97
	고등부:당신을 향해/강정희101
제주도 교육감상	초등부:보고싶은 큰 할아버지/홍성연103
	중등부:통일의 이름으로/고영경106
	고등부:소녀의 그림/조희자108
통일연수원장상	초등부:통일이 오면/고은희110
	중등부:그날이 오면/고미라111
	고등부:사랑하는 북녘누이에게/강민구114

부산북한관 통일글짓기 대회 입상작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상

초등부 통일을 위하여 내가 할 일/정희라

중등부 미래의 통일기념대/조기영

고등부 다시 해뜨는 그날까지/이승후

부산광역시교육감상

초등부 자유의 집/전수진

중등부 단군과 통일/윤소희

고등부 너, 나 그리고 우리/김윤정

통일연수원장상

초등부 북한에 사는 친구에게/김형주

중등부 통일전망대에 올라/강현명

고등부 그렇게 몇해가 흘러갔답니다/구현정

통일을 위해 내가 할 일

정 희 라

구서국민학교 5학년

작 년가을, 운동회 때의 일이다. 아이들 모두 교실에서 “조용히 해!”하는 선생님의 말씀에 억눌려 그 마음을 여기서 풀겠다고 생각이나 한 듯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며 달리고 있었다. 그날 아침, 늦잠을 자다 세수도 하는등 마는 등 하고 밥도 먹지않고 운동장에 들어선 나는 호수처럼 잔잔한 하늘위에 수놓듯 놓여있는 만국기를 본 다음 바로 그런 아이들의 광경이 눈 앞에 펼쳐지자 나도 모르게 입가에 웃음이 번지고 있었다.

“희라야 뭐하니?”

“응, 혜윤이구나, 근데 우리자리는 어디니?”

“저쪽 스탠드 끝. 빨리와, 이제 곧 경기가 시작되니까.”

드디어 1학년들의 공굴리가 시작되고 깃발 주위오기 등의 게임이 시작되자 청백으로 나뉘어 학교가 떠나갈 듯이 응원가를 힘차게 불렀다. 그리고 가슴 조이던 우리들의 줄다리기 경기가 시작되었다. 나는 줄다리기 경기를 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그래, 줄다리기는 단결이야. 수십명이나 되는 한팀이 이기기 위해선 서로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힘을 한곳에 모으고 일시에 잡아당겨야 한단 말이야.’

나는 그때, 문득 작년 7월의 일이 생각났다. 도덕 시간에 선생님께서 어떤 비디오를 하나 보여 주셨는데 거기서는 몇 년 전에 한국과 북한의 축구경기가 나왔다. 우리는 처음 본 것이라 매우 신기해서 북한과 한국의 아슬아슬한 장면이 나올 때마다 손에 땀을 불끈 쥐고 한국 이겨라하고 응원했다. 결국 한국이 골을 터트리며 이기게 되었다. 나는 무척 통쾌했다. 자기들만 제일이라고 우기는 공산주의자들에게 본때를 보여 주었다는 것이 그랬다. 다른 아이들도 그랬을 것이다.

“야, 북한이 지는 것은 당연하지 뭐. 강냉이 죽밖에 못먹은 말라깽이들이 이길 수나 있으려고.”

“맞어. 맞아. 그리고 한국 축구가 얼마나 강한테 저희같은 놈들에게 저.”

모든 아이들이 한마디씩 하고 있을 때였다. 선생님께서 들어오시더니,

“여러분, 조금 전에 축구 보았죠?”

“네!”

“정말 통쾌했어요.”

“북한 공산당들은 본때를 보여 주어야 해”

아이들이 모두 한마디씩 하자 선생님께서 갑자기 어두운 표정을 지으시더니,

“선생님은 별로 마음이 좋지 못해요. 우리와 북한은 한 민족이지 않아요?”

한민족이 서로 남북으로 나뉘어서 축구를 한다는 것도 그렇지만 한국만 승리의 기쁨을 맛보야 했다는 것도 그래요.

기쁨은 함께 나눌수록 커지는 것인데 한국도 반쪽 기쁨밖에 맛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 말씀에 아이들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그리고 난 후, 우

리반은 남북통일의 날을 기다리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란 노래가 자연스럽게 교실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생각했다. 언젠가 사회시간에 배웠던 것이지만 우리나라가 삼국으로 갈라졌어도 하나로 통일될 수 있었는데 왜 두조각 나가지고 하나로 이어질 ^수 없을까를. 그러나 지금이라도 우리가 북한과의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꾸 노력을 하면 평화통일은 꼭 이루어질 것이다. 만약, 내게 휴전선을 지우는 지우개가 있다면 얼른 달려가서 휴전선을 지우고, 철도를 달리고 싶다는 철마의 소원을 들어 주겠다. 그리고 한 민족끼리 얼싸안고 다닐날을 기대할 것이다. 금강산, 한라산, 백두산, 설악산이 어깨를 같이하고 어우러질 날을.

그리고 통일을 이룩하려면 투철한 애국심과 내게 주어진 책임을 완수하는 국민이 되어야겠다.

“희라야. 빨리빨리.”

“어?... 그래 알았어.”

드디어 긴장되는 줄다리기 시작이다.

“영차영차”

“청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조금씩 조금씩 줄이 우리쪽으로 오고 있었다.

“조금만...더...힘을...내.”

“뵙”

선생님의 호루라기 소리가 들리고 백군이 이겼다는 말에 우리는 모두 짱충짱충 뛰었다. 그제서야 나는 깨달았다. 청군과 백군뿐만 아니라 한국과 북한의 통일 줄다리기에서도 단결만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또한, 열심히 공부하는 가운데 몽당연필, 공책 한장이라도 아껴쓰며 알뜰히 저축하는 길이 통일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미래의 통일기념대

조 기 영

충렬여자중학교 2학년

하늘이 잔뜩 저푸려 있다. 오늘이 바로 추석 전날인데도 우리 할아버지와 난 통일전망대로 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추석 전날 같지않은 적막한 분위기가 나는 싫다. 하지만 할아버지께선 매년 명절이면 어김없이 이 버스에 오르신다.

“부릉. 부릉.”

서서히 버스가 움직인다. 슬쩍 옆을 돌아보니 할아버지께선 두 눈을 꼭 감고 계신다. 어느새 버스는 큰 길로 접어들어 말로만 듣던 통일전망대로 향하고 있다.

우리 할아버지의 고향은 황해도 재령. 지금은 갈 수 없는 철조망 저 너머의 땅이다. 할아버지께선 6·25 동란때, 월남 하셨는데 그곳에 형님 내외분과 노모를 남겨두고 오셨단다.

“기영아, 이제 다 왔다. 내리자.”

속이 거북할 즈음, 할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셨다. 얼른 일어나 밖으로 나왔다.

할아버지께선 한참 동안 주변을 둘러보시더니, 나의 손을

잡고 휘청휘청 언덕배기위로 걸음을 옮기셨다. 아래에는 강물이 반짝반짝 햇빛에 비치고 있었다.

할아버지께서 가져가신 검은 가방에서 빛바랜 손수건 한 장을 꺼내셨다. 접혀진 부분이 다 해질 정도로 낡은 손수건이었다. 할아버지께서는 주저함이 없이 그 손수건을 땅바닥 위에 곱게 펼쳐 놓으시더니 낙엽을 이리저리 헤치셨다. 그리곤 그 아래 드러난 축축한 검은 흙을 조심스레 한 줌 집어 펼쳐놓은 손수건 위에 얹으셨다. 그 떨리는 손놀림이, 꿇고 있는 자세가 너무나 경건하여 난 그 곁에서 숨소리도 내지 못했다.

얼마가 지났을까. 통일전망대에 오르신 후에도 한마디 말씀없이 묵묵히 계시던 할아버지께서 망원경을 들여다 보시더니 얼른 눈가를 비비셨다. 그 눈가에 내비치던 눈물을 난 보았다. 할아버지께서 망원경을 통해 북녘땅을 보시고 그리움을 이기지 못하신 모양이었다.

“할아버지!”

“...”

“할아버지!”

“기영아, 추하지? 이 할애비가 너무 아쉬워서 그런단다.”

할아버지께서는 벌겋게 충열된 눈을 내게 보이지 않으시려고 무던히도 노력하셨다. 하지만 난 할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을...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께서 전망대 근처의 어느 허름한 식당에 나를 데리고 들어가셨다. 된장찌개를 시켜 주시면서 내게 숟가락을 쥐어 주실 때 난 서둘러 여쭙보았다.

“할아버지, 그 흙은 뭐예요?”

“그래, 너에게도 말해 주어야겠지. 할아버지는 이제 오래 살 수가 없을 것 같다. 이젠 나도 일흔인걸. 그러나 이 할애비에게 소망 한가지가 있단다. 바로 북녘땅의 흙이나 한번 만져보고 죽는 거란다. 통일이 언제쯤 이룩될진 모르겠지만

내 그날까지 살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그래서 고향땅에서 가까운 흙이라도 한 줌 집어갈까 해서... 그런데 아까 통일전망대에서 먼 발치로나마 북녘땅을 보고나니, 지금이라도 휴전선이라는 철조망을 헐어버리고 고향땅을 밟을 수 있을 것 같더구나. 그러나 그럴 수 없는 현실이, 이 분단된 조국의 현실이 너무나 가슴아팠단다.”

“할아버지, 아니예요. 통일의 길은 결코 멀지 않아요. 하나가 되려는 마음만 있다면, ‘북한’과 ‘남한’이 아닌 ‘한국’이 될 마음만 있다면 말이예요. 할아버지, 비록 지금은 이곳이 ‘통일전망대’이지만 이제 멀지않아 ‘통일기념대’가 될 거랍니다. 할아버지, 그날까지 오래오래 사세요.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또 그 다음해에도 어김없이 미래의 통일기념대에 와야지요.”

할아버지와 함께 식당을 나왔을 때, 하늘은 이미 캄캄해져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비춰주기라도 하듯 별들은 돌아오는 길을 하얗게 비춰주고 있었다.

다시 해뜨는 그날까지

이 승 후

양정고등학교 2학년

2002년 6월 25일, 아침 6시.
뉴스에서 아나운서의 감격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국민 여러분, 드디어 통일입니다. 드디어, 우리 대통령과 북한 대표자가 통일 협정서를 체결했습니다. 이 시간을 기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통일입니다. 기뻐해 주십시오!”

곧 이어지는 아나운서의 목소리.

“통일과 더불어 오늘 월드컵이 우리 통일조국에서 개최되게 되었습니다. 이번 월드컵엔 남북한, 아니 통일 대한민국의 선수가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밤새 기다렸던 이 발표에 할머니의 두 눈시울엔 뜨거운 눈물이 고이셨다.

“그렇게도 기다렸는데 이제서야...” 하시며 우시는 할머니께선 할아버님 생각이 나시는 모양이다. 5년 전 돌아가신 할아버님의 고향은 신의주였다.

그렇게도 통일을 바라시던 할아버님. 비록 통일은 못보셨지만, 고향땅에 묻히시겠다는 소망은 들어드릴 수 있게 되어

서, 나의 두눈에도 눈물이 흘렀다.

오늘같은 통일 기념일. 나는 뭔가 뜻깊은 일을 하고 싶었다.

“그래, 신의주까지 여행하는 거야!” 문제는 부모님께 허락을 받아야 했다.

두분께선 쉽게 허락해 주셨다. 학교도 통일 기념주간으로 열흘간 휴강하니 더없이 좋은 기회였다. 특히, 신의주는 할아버지의 고향이다. 더욱더 뜻깊은 여행이 될 것 같았다.

드디어 출발.

먼저 들린 곳은 서울. 통일 계획의 일환으로 전국에 건설된 고속전철 덕에 1시간 남짓만에 도착했다. 처음 서울에 간 이유는 월드컵 1차전을 보기 위해서이다. 예상대로 통일 한국팀의 대승리.

승리의 기쁨을 만끽한 다음, 철의 삼각지를 둘러보았다. 6·25때 그 치열했던 격전의 현장엔 초연과 철모는 사라지고 대신 무궁화 동산이 되어 있었다. 6·25 당시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죽어간 용사들의 위령탑을 참배하고 무궁화 한송이를 앞에 두었다.

‘편히 잠드소서’

다음 간 곳은 금강산. 신이 만든 창조물 중에 가장 완벽한 것이란 이름에 알맞게 정말 아름다웠다. 봉우리 하나하나를 정성스레 빛은 신의 숨씨에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 금강산을 둘러보니, 어느덧 오후다. 산장에서 잠을 잔 후, 열차를 타고 평양으로 출발.

창밖에 펼쳐지는 북한의 모습. 통일 계획으로 많이 현대화 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옛날의 퇴색된 흔적이 남아 가슴이 아팠다.

평양에 도착하여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옛날 폐쇄된 공산주의 도시였던 이곳은 이제 서울 못지않은 대도시로 발전해 서울과 더불어 세계적인 중심지가 되어 있었다.

통일전 주석궁으로 쓰였던 건물은 지금은 통일 기념관으로 쓰이고 있었다. 통일에 맞추어 어제 문을 열어서 그런지 사람이 만원이었다. 곳곳에서 들리는 구수한 평양사투리에 가슴이 푸근하였다.

드디어 마지막 도착지인 신의주행 열차에 몸을 실었다.

늦은 시각이었지만, 할아버님의 잃어버린 고향에 간다고 생각하니 쉽게 잠이들지 않았다.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새벽 무렵에 신의주에 도착하였다. 서둘러 바닷가로 향했다. 과거 50여년간이나 밝아보지 못했던 이 땅의 일출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약 20분쯤 기다리니 이글거리는 붉은 해의 머리가 보였다. 곧이어 이글거리는 그것이 나타났다. 얼마가 지나자 태양은 완전히 처녀의 수줍은 알몸을 나에게 보여주듯 붉게 물든 몸으로 나타났다. 그 장엄한 광경에 나는 넋을 잃었다. 얼마나 보고봤던 광경이었는가? 할아버님 생각에 가슴이 저려움을 느꼈다.

나는 당신께서 늘 나에게 해주시던 말씀. 오늘의 이 광경을 보고 외치시고 싶으시다던 그 말씀을 외쳤다.

“통일의 해야! 어서 뜨거라!”

자유 의 집

전 수 진

동신국민학교 6학년

내가 만약 새가 된다면
마음속에서 파랗게 돌아나는
통일의 소망을
꼬옥 이룰 수 있는
새가 된다면,

남북땅 마음대로 드나들며
자유 의 집 짓고 싶어요.

칠천만의 그리움과 한숨이
맺혀있는
눈물어린 철조망에,

남과 북 나뭇가지 물어다
등지를 틀고,
남과 북 흙 물어다
튼튼하게 다져서,

희망이 꽃피는
통일의 집 짓고 싶어요.

이산가족의 울부짖음
모두 모아서
저 백두산 중턱에 묻어 버리고,

우리 외할아버지
고향 잃은 슬픔을
저 대동강에 흘려 보내고,

따뜻한 사랑으로 지은
자유의 집에서
기쁨의 노래 마음껏
부르고 싶어요.

단군과 통일

윤 소 희

해운대여자중학교 3학년

일제의 굴레를 벗어나
광복된 지 반세기

그러나 1950년 유월은
싱그러워야 할
조국의 산하가
포탄에 찢기고 활귀어
폐허가 되었다는
할머님의 전설같은 말씀

오늘도 유월의 할아버님이
산너머 아득한 북녘 하늘에
통일의 꽃씨가 담긴
오색 풍선을 날리신다

우리는 단군의 핏줄
이제 빛바랜 갈등일랑
가슴에 묻고

가까운 날
너랑 나랑 한몸되어
쪽빛 바다 넘실대는 동쪽 하늘에
찬란한 통일의 햇덩이 솟게 하자꾸나.

너, 나 그리고 우리

김 윤 정

계성여자상업고등학교 2학년

— 반만년의 역사속에 갈려진 이 땅덩어리가, 다시 하나가
되는 그날을 당신은 느껴보셨습니까 —

새벽이슬이 채 가시지도 않을 때
면면히 지켜온 역사의 성문엔
칼바람이 몰아쳤고,
금새 붉은 피비린내에 찌들었다.

여기저기선 恨쉬인 소리로 울부짖으며
이승과의 작별을 고했고,
그러기에 얼굴조차 모르는 너와 난
生을 위한 몸부림을 쳐야만했다.

어느덧,
역사의 성문은 너와 나를 사이에 두고
굳게 닫혀져버렸고,
난, 한라흔으로
년, 백두얼로

또다른 역사를 만들었다.

반만년이 지난 지금,
달혀진 성문을 향해
훈훈한 자유의 바람 날려보내고
백두열, 한라혼 던져본다.

인고의 세월, 매운바람 이기고
피어난 우리를 위해...

북한에 사는 친구에게

김 형 주

토성국민학교 6학년

안녕! 숲속의 나무가 어느새 푸르름을 자랑하는 6월의 문턱에 다가가 있어. 그동안 잘 있었니? 서로 손을 잡고 뛰어 놀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생각대로 이룰 수 없는 안타까움에 연필을 들었어.

참, 난 부산토성국민학교 6학년 김형주라고 해. 난 좀더 네 생활을 알고 싶고 너와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에 한 자, 한 자 써 나가고 있어. 내 생각이 네게 잘 전해졌으면 좋겠구나.

친구야, 솔직히 난 너에 대해서도, 네 생활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그다지 많지 않단다. 하지만 너와 난 한 핏줄을 타고 난 친구라는 뚜렷한 사실 하나에 자신감이 생겨서 너에게 내 마음을 전하고 있는거야. 웬지 네게 쓰는 편지는 자신이 없었거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었을까?

얼마전 학교 도서관에서 '북한을 바로 알기'라는 책을 보게 되었단다. 너희 사회를 꾸밈없이 보여 주는 하나의 조그만 사전이라고 할 수 있지. 그 책을 읽으며 지금 내 생활과

너무 대조적인 ‘북한’이란 너네 사회에 난 놀라움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너네 사회에 익숙해진 너 이해할 수 없을런지도 모르지만, 잔뜩 꾸며진 너네 책들과 어른들의 말 씀이 날 참 가슴아프게 했다. 한 인물을 떠받드는 뼈뿔어진 생활 방식에, 현재 훌륭한 조상들이 누군지도 모르는 너희들이 되어 있는건 아닌지 걱정이 된다. 또 부족한 식량, 물자들로 생활하면서도 불평없이 사는 너희들이 참 안돼보이기도 해.

생각 같아선, 조그만 빵 한 조각이라도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란다. 한편으로는 함부로 버린 모든 것들에 대해 너무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

친구야, 이런 것들을 보고 들으며 ‘세상에 이런 비극이 또 있을까?’하고 생각했어. 부모, 형제는 다르지만 엄연한 단군 할아버지의 후손이잖아. 한땅덩어리에 살고 있으면서도 휴전선이란 철조망 때문에 굶주리고 사는 사람들과 부유한 사람들로, 자유없는 나라와 자유로운 나라로 나뉘어야 한다는 것...

화가 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해. 몇해 전 베를린 장벽을 허물며 기뻐하는 독일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더 그런 생각이 들었던다. 이산가족들이 더 안되어 보이기도 했어. 어쩌다 한번씩 가족들이 만나는 모습을 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서로 미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6·25전쟁만 없었다면 처음부터 ‘이산가족’이란 이름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산가족들이 서로 만나 흘리는 눈물은 기쁨의 눈물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조상들에 대한 원망과 서로 달라진 모습들이 너무 많아서 흘리는 눈물이 아닌가 하고 생각돼. 내 주위에는 북녘땅을 보며 눈물 지어야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무엇보다 다행스러워.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을 함께 느낄 수가 없지만 조금은 이해한다. 가끔 텔레비전에서 금강산의 모습을 멀리서 보기만 하고 돌아와 눈물짓

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말이야.

사랑하는 친구나 가족이 한동안 연락이 끊겨 버렸을 때, 참 슬펐거든. 믿고 따르던 친구가 전학갈 때, 선생님이 전근 가셨을 때 많이 울었던 적이 있어. 이산가족이 흘리는 눈물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의 예사로운 눈물이지만 그때마다 그분들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어.

친구야, 난 무엇보다 네가 용기를 잃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야. 어머니께서도 언제나 “힘든 일이 있어도 좌절하지 말고 용기를 내야 한다.” 하고 말씀해 주시거든. 이 말을 꼭 전해주고 싶었어. 혹시 네가 희망을 잃지는 않을까, 너무 힘들어서 도중에 포기해 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야. 나도 가끔 ‘포기’라는 말이 날 유혹할 때면 어머니 말씀을 떠올리곤 해. 그럼 용기가 조금씩 생기거든.

친구야, 내 생각들이 너에게 잘 전달되었는지 모르겠구나. 되도록이면 너도 내가 사는 사회를 조금이라도 알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네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 만약 서로를 안다면 마음을 서로 터놓고 지내는 그런 친구가 되었을텐데... 하지만 지금 우리 모습에 대해 불평하지 말고 언젠가 서로 손을 잡고 백두산을 오를 수 있는, 한마음 한뜻을 가지게 될 날을 기다려 보자. 서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 최선을 다한다면 그 날은 틀림없이 다가올거야.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다면 통일은 더 빨리 이룩될 거야. 이 편지가 네게 전해지는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잊지마.

친구야, 그럼 우리 서로 만나 기쁨의 편지를 주고받게 되는 모습을 그리며 이만 줄일께.

그날까지 잘 있어. 안녕!

1995년 5월 24일

- 통일을 기다리는 친구 형주가 -

통일전망대에 올라

강 현 명

동래중학교 2학년

지난 겨울
가족과 함께
통일전망대에 올랐다.
인고의 세월이
긴 강 위에 꿈꿈
얼어붙어 있었다.

아득한 분단의 시간들
녹슨 철마 위에서,
끊어진 철길 곁에서,
총탄 박힌
전투기 프로펠러에서,
부서진 채
신음하고 있었다.

허리굽은 할아버지
날이 저물도록
강 저 너머를 바라보고 섰고

할머니 한분은 자꾸만
눈물을 흘리셨다.

겨울 임진강은 울고 있었다.
열 다섯, 내나이 학도병이 흘린 피가
45년 긴 세월을
통곡하며 흐르고 있었다.

말없이 앞서 걷는
아버지 뒤에서
칠순 내 할머니는 걸음을 늦추셨고
내 가슴에 아픔이 고이면서
4박5일 아버지의 겨울휴가는 끝이 났다.

철마야 달려라!
임진강아 울음을 거두어라!

그렇게 몇해가 흘러갔습니다

구 현 정

계성여자상업고등학교 1학년

지난 일요일, 정말 오랜만에 외할아버지를 뵈러 갔다. 결코 그리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기에 가족들 모두 마음만큼 찾아뵙지 못한것이 사실이다.

아침 일찍 아버지의 차를 타고 도시를 벗어났다. 고속도로의 시원함을 만끽하며 난 설레이는 마음을 누를 수가 없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식구가 간 곳은 '울산 공원 묘지'였다.

몇해 전 외할아버지께서 누우셨던 그 자리에는 왠지 모를 슬픔이 보였다. 어머니는 그 자리를 매만지시며 끝내 울부짖음에 가까운 울음을 터뜨리셨고, 옆에 있던 나 역시 더이상 참을 수 없는 슬픔을 다 쏟아내고야 말았다.

나의 외할아버지는 고향이 이북이시다. 6·25 당시 경찰이시던 그분은 남들보다 더 빨리 남한행 기차에 오르실 수 있었다고 한다. 대가족을 이끌고 이곳으로 살길을 찾아 오신 외할아버지는 이곳에서 더욱 큰 시련들과 고통으로 찌들릴 대로 찌드셨단다. 젊은 나이를 그저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해 몸부림만 치고 지내셨던 그분은 살기가 편해질 무렵부터는

병상에서 벗어나질 못하셨다.

난 어렸을 때부터 고통을 토해내시는 그 분의 모습만을 보고 지냈다. 어머니는 항상 “현정아, 외할아버지께 가보렴.” 하며 내 등을 떠밀곤 하셨지만 어린 내게 그건 너무도 싫고 두려운 일이었다. 때론 억지로 외할아버지 무릎에 앉혀진 난 겁에 질려 끝내는 울음보를 터뜨리기도 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웃음만 나온다. 마냥 나만 좋아해 주시던 그분을 난 왜 좀더 빨리 알지 못했었는지 내 자신이 한심할 뿐이다.

의학 기술이란 정말 뛰어나다고 해야할지 그분은 한동안 발일을 하실 수 있을 만큼이나 병이 완쾌되셨다. 언제나 신경질만 내시던 그분은 어느새 산밑 밭에서 나의 꿈을 키워 주고 계셨다. 셀 수 없을 종류들의 열매와 과일, 꽃들과 원두막, 지금 생각하면 거긴 그 분이 꿈에 그려오셨던 북녘땅이 아니었던가 싶다.

그 무섭던 외할아버지는 어느덧 내게 없어서는 안될 큰 존재가 되어계셨다. 그분은 언제나 내 손을 꼭 잡으시고는

“현정아, 통일이 되면 니랑 할아버지랑 같이 가제이~.” 하시며 억센 사투리로 얘기하시곤 했다. 그때 난 그곳이 어딘지도 모르면서 마냥 꼬덕거리기만 했었는데 지금 이만큼 자란 내게는 왜 그말이 들리지 않는지... 이젠 이해할 수 있는데도 그분은 안계신다. 그저 그분의 음성만이 긴 여운으로 남아 귓가에 맴돌 뿐이다.

‘통일’ 외할아버지의 영향이었을까. 난 유달리도 그것에 민감했다. 어렸을 때부터 마음깊이 새기고 있던 나와 외할아버지의 염원이다.

한동안 북녘의 정치속에 폭 빠져계셨던 탓이었는지 그분은 다시 쓰러지셨다. 외할아버지의 꺼칠꺼칠한 손도 더이상 내 손을 잡아주지 않으셨고 난 어머니의 손에 끌려 여기로 왔다. 며칠을 난 잘 먹지도 못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병이 날 지경이었다. 학교를 다니고 조금씩 커가던 난 3

년만에야 외할아버지를 다시 보았다.

야윈 얼굴에 링겔에 온몸을 의지하시고 날 향해 희미하게 웃어주시던 그분의 모습이 너무 생생하다. 3년이란 결코 짧다고 할 수 없었지만 난 여전히 그 옛날 그분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꺼져버릴 듯한 그 웃음속에는 너무나 큰 소망이 있었다. 아니 적어도 내겐 그렇게 보였다. 그 뒤로 난 다짐했다. 통일이 이루어지면 꼭 그분을 모시고 북녘땅을 밟겠다고... 어린맘에 그렇게까지 생각했던걸 보면 외할아버지의 바램이 얼마나 컸던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몇년을 그렇게 희미하게 이어 나가셨다. 차라리 더이상 고통 받으시지 말고 가셨으면 할 정도로 안타까웠다.

내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쯤 난 조금의 희망을 느꼈다. 외할아버지의 꺼져가던 생명줄을 다시 이어 놓았던 그 무언가가 있었던지 그분은 조금씩 건강을 되찾아 가시는 듯 했다. 그 뒤로 내가 자주 보았던 그분의 모습은 너무 나약했다. 내게 등을 보이시며 자꾸 눈물을 훔치시던 떨리던 그 손을 나는 잊지 못한다. 난 예감치 못했다. 그것이 마지막일 거라고는...

병상에 다시 누우신 외할아버지는 조금씩 조용히 조용히 꺼져 가셨다. 92년 12월 28일 새벽이었다. 어머니는 외할아버지가 고비시라며 미리 내려가신 상태였다. 그때 난 학교에 다녀야 했고 그런 일은 종종 있었기에 그렇게 걱정하지는 않았었다. 전화벨 소리와 초인종 소리가 동시에 새벽을 울렸다. 문을 여니 이모가 넋이 빠진 표정으로 외할아버지의 가셨음을 알려주셨고 난 터져버린 눈물로 날 가눌 수가 없었다. 전화를 받아 들었을 때 상대쪽에서는 엄마가 목이 꼭 메인 내게 “괜찮다. 현정아, 괜찮아.” 만을 계속 연발하셨다.

그분의 장례식날 난 관을 보며 답답함을 느꼈다. 안된다고, 할아버지가 계신다고, 울고 불고... 끝내 난 묘지까지 따라가지 못했다.

그분의 생은 너무도 고통스럽고 힘들었다. 내가 알기론 외할아버지가 그만큼이나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던건 고향땅을 밟으려는 신념때문이 아니었던가 싶다.

항동안 멍하니 울고만 있었다. 외할아버지를 위해선 기뻐해야 할지도 모를 일이었는데도 말이다. 할아버지를 등뒤에 남기고 돌아서는 내게 외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현정아, 북녘에 가 봤단다. 거기도 그대로더구나. 너도 꼭 가봐야 한다.”라는. 그렇겠지. 외할아버지는 행복하실 것이다. 이제 북녘을 바라보시며 빨리 통일이 될 그날을 바라시고 계실 것이다.

빨리 통일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외할아버지의 염원이라서만이 아닌 온 민족의 꿈이기 때문이다. 이제 곧 꿈이 아닌 현실이 될 그날을 기다리며 마지막으로 내마음의 글을 하늘에 띄워 보내고 싶다.

외할아버지께

그렇게 몇 해가 지났답니다.

전 정처없이 여기까지 왔구요. 외할아버지가 만드신 발은 이제 아무 손길도 없어 황폐화 되었지만 저의 눈엔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북녘도 그런 곳이겠지요. 꼭 그렇겠지요. 전 믿습니다. 통일이 될 것이라구요. 그리고 외할아버지께서 지금도 절 보고 계시리라는 것도요.

전 북녘땅을 밟을 그날을 향해 열심히 나아갈게요.

사랑합니다. 정말루요. 정말루요...

인천북한관 통일글짓기 대회 입상작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상

초등부 통일을 향하여/김연수

중등부 자유바람/백지형

고등부 통일의 그날/차민우

인천광역시교육감상

초등부 자유바람/여행운

중등부 통일이 오면/정신구

고등부 북한관에서/박윤미

통일연수원장상

초등부 북한에 있는 내 또래의 아이에게/이유정

중등부 북한관에서/서미진

고등부 북한관에서/이지현

통일을 향하여

김 연 수

대정국민학교 6학년

나는 통일동산에서 통일기차에 막 오르고 있었다.
“삐익!”

출발을 알리는 기적 소리가 내 마음을 들뜨게만 했다.
“칙칙폭폭, 삐익!”

기차가 출발하자 여기저기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와! 이 기차를 타보다니...”

“나... 너무 기뻐”

“응- 응”

감격해서 울음을 터뜨리는 사람도 있었다.

나도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다가 문득 창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러다가 저쪽에 내 또래의 아이가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누굴까?’ 나는 궁금해서 얼른 그애 옆으로 가 앉았다.

“안녕? 난 인천에 사는 연수인데 넌 누구니?”

“응, 난 평양에 사는 영순이야.”

“그래? 참 반가워. 우리 친하게 지내보자.”

“그래.”

그때 안내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일이 되어 기쁘시지요? 이번 목적지는 평양입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에서 환호성이 들렸다.

“와—! 평양!”

“와—!”

어느 곳에선 어떤 할머니께서 울고 계셨다.

이윽고 평양에 도착했다. 어? 그런데 아까 본 할머니께서 어떤 할아버지와 부둥켜 안고 울고 계셨다.

“아이고. 영감…!”

“내래 남자 못 볼 줄 알았어.”

‘아— 이산가족 이셨구나.’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찡했다.

“와 — !”

평양은 볼거리가 많았다. 영순이의 설명을 들으며 구경하니 이해하기도 쉬웠다. 특히 대동강 유역의 모습이 인상 깊었다.

사람들이 모여 손에 손을 잡고 기뻐하고 있었다. 또 만수대 예술극장에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란 영화를 감상했다.

그 내용은 통일이 되어 기뻐하는 모습과 우리 나라가 점점 부강해져 선진국이 된다는 것이다. 참 가슴 뿌듯했다.

다음에는 그렇게도 가 보고 싶었던 백두산에 가기로 했다.

“빼익 — !”

기차가 출발했다. 이렇게 한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백두산이다!”

하고 소리쳤다.

그러자 사람들이 “뭐? 어디 어디?” 하고 소리치며 창쪽으로 우르르 몰려 들었다. 그때 안내원이 “승객 여러분, 드디어 백두산에 도착했습니다. 내리실 준비를 서둘러 주십시오.”하고 말했다. 우리도 내릴 준비를 서둘렀다.

“치이익 -”

백두산에 도착하여 통일기차에서 내리자 난 백두산을 올려다 보았다. 백두산의 봉우리가 너무 까막득해 보였다. 하지만 올라가 보기로 결심했다. 영순이와 나는 잡아주고 이끌어주며 산을 올랐다. 오르고 있는 어떤 할머니께서 “내래 와 이리 힘이 빠지노. 젓먹던 힘까지 다 써 버렸대이.” 하시며 힘들어 하셨다. 우리는 할머니를 도와드리기로 했다.

“아유. 고맙대이.”

할머니께서는 무척 고마워 하셨다. 이윽고 정상에 올랐다.

“야호!”

크게 소리치자 메아리가 다시 되돌아 왔다.

우리는 천지로 갔다. 천지의 맑고 푸른 물이 내 피로를 개운하게 풀어 주었다. 한참 들여다보는데 기적 소리가 들렸다.

“에이 더보고 싶은데...”

사람들이 투덜거리며 산을 내려갔다. 나도 같은 심정이었다.

“삐익!”

기차가 출발한 후 조금 있다가 안내원이 말했다.

“다음 목적지는 금강산입니다.”

“와 -!”

안내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난 환호성을 질렀다.

그러자 승객들의 눈이 모두 날 쳐다보았다. 무안해 홍당무가 된 내 얼굴...

그때 안내원이 “금강산에 도착했습니다.” 하고 말했다. 순

간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바람에 내 귀가 다 멍멍해졌다.

“치익 - !”

“와 -!”

통일기차에서 내린 나는 금강산의 아름다운 경치에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유명한 일만이천봉... 계곡의 아름다운 경치... 그 모든 것이 볼수록 아름답고 신기하기만 했다. 어떤 할머니께서 눈을 동그랗게 뜨시더니 “오메 여기가 금강산인가?” 하시며 놀라워 하셨다. 이윽고 정상에 올랐다.

“와아 -!”

산미를 내려다보자 산을 감싸고 있는 하아얀 구름이 보였다. 마치 내가 신선이 된 기분이었다.

조금이라도 더 구경하려고 나는 이곳 저곳을 둘러보았다. 그때 출발 신호가 들렸다.

“으와앗 -!”

영순이와 나는 급히 내려오느라고 굴러 떨어질뻔 하였다.

다시 기차가 출발했다.

“이번에 서울일테니 내가 소개해 줄께.” 하고 영순이에게 말하자 영순이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이며 좋아했다.

“삐익! 찌익 !”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나는 영순이를 이끌고 63빌딩의 전망대로 향했다. 전망대에는 벌써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다.

“와아! 영순아 저것 좀 봐.”

“응?”

한강쪽을 바라보자 사람들이 모여 통일을 축하하는 불꽃놀이와 농악놀이를 열고 있었다. 영순이와 나는 너무 기뻐서

손을 마주잡았다.

다음엔 제주도에 갔다. 제주도에서는 한라산에 올랐다. 오르는 동안에 넓은 초원에서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는 말들을 볼 수 있었다. 이윽고 정상에 올랐다. 맑은 물이 고여있는 백록담이 무척 아늑하고 평온해 보였다. 특히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제주도의 풍경은 마치 한폭의 그림같았다.

영순이와 구경을 마친 후 집으로 오려던 나는 문득 청와대 생각이 났다.

“앗참! 영순아 우리 청와대에 갈래?”

“그래 그래”

그리하여 우린 청와대로 향했다. 청와대에 도착하자 마침 대통령 할아버지께서는 정원에서 꽃을 보시고 계셨다.

그러시다가 우릴 보시더니 “너흰 누구냐?”하고 물으셨다. 그래서 나는 “네. 저는 인천에 사는 연수고요, 애는 제 평양 친구 영순이에요.”하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대통령 할아버지께서 “오- 그래? 반갑구나” 하시며 우릴 이끌고 청와대로 들어가셨다.

할아버지와 우린 칼국수를 먹으며 그동안 여행한 곳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청와대 구경도 했다. 또 돌아올 때에는 선물도 한아름 안겨주시며 “나도 아직 백두산이나 금강산에 가보지 못했는데 연수가 가보았다니 참 부럽구나.” 하시며 날 부러워하셨다.

또 영순이는 기차에 오르면서도 계속 싱글거리며 나에게 고맙다고 했다.

“고마워, 연수야. 다음에... 다음에 또 만나자.”

“그래 영순아 안녕!”

영순이를 태우고 떠나려는 기차를 바라보고 있는 나를 엄마게서 깨우셨다. 꿈이라... 정말 아쉬웠다. 그리고 생각했다.

‘통일이 오면 이꿈이 이루어질텐데... 물과 콩기름이 비누로 합쳐지듯이 우리나라도 어서 통일이 되어 하는데... 부디 우리 나라의 통일을 이룰 비누가 어서 생기길...’ 하고 말이다.

하루빨리 통일이 이루어져 온 국민이 손에 손을 잡고 기뻐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길 기대하면서 이글을 마친다.

가자! 통일을 향하여...



자유바람

백 지 형

부흥중학교 3학년

꼬마 하나
비누 방울 날린다.

꼬마의 파아란 입김
둥글게 날린다.

대지의 숨결 타고
저 위로 날린다.

파아란 호수,
파아란 입김

같은 색 사이
경계면 보인다.

햇빛 색
아름다운
같은 색을 나누어놓은
모호한 경계면

꼬마의 입김
몸부림 친다.

파아란 호수로
녹아들어간다.

햇빛 색
모호한 먼도
녹아들어간다.

대지의 숨결
꼬마의 파아란 입김
날린다.

파아란 호수
함께 날린다.
함께

진보다 더
아름다운 오색 빛 만들기에
꼬마는 즐거워한다.

정녕 그들을
자유롭게 날린,
자유롭게 쉬을,
대지의 숨결이기에

꼬마는
또 다시
비누 방울 하나를
대지의 숨결에
날린다.



통일의 그날

차 민 우

통일여자상업고등학교 3학년

한강수는 태평하게 흐르는데
여기에 묻어둔 아픔 있던가.

마흔 두 해 묵은 한숨
산줄기에 박고 돌아누워,
아니지요.
가난한 민심(民心)을 달각이며
우리 손으로 헐켜어진 허리춤에
남은 숟가락 끼우고
관자집 비새는 날에
서로 붙잡고 울던
우리네 검어진 손.
눈이 오고 비내리는 날에도
암팡지게 밟디던 우리들의 땅

병든 아픔은 허덕이며
잊지 못하고 사는 아픔을
낮질하는 모래바람에

메마른 가슴끼리 부대끼며
한강수의 유유함으로 살고픈
우리네 보람 있던가.

손바닥만한 땅덩이 둘로 갈라
이리저리 흐트러놓은 피의 파편들
끊지 못할 형제의 가슴팍에
박아놓은 한(恨)이라!

물줄기 흐르듯 세월은 묻혔어도
말없는 산맥의 아우성을 들어보라
죄지은 우리를 꾸짖으며
편안하라 하네.
잠들라 하네.

우리네 삶이 무궁하여
대대손손 살려마는
일그러진 우리의 모습을 보라.

뻑뻑한 집숲에 갇힌
가빠진 호흡들,
저마다 안고 사는
행복의 몸부림들,
즐비한 허욕이여...

그러나
백두산에 해가 뜨고
한라산에 녹음 들어도
우리 속세에 지워진
짐이 있던가.

희희낙락 살고 싶은 내 형제여,
아웅다웅 파놓은
죽음의 구덩이를 메꾸고
흐트러진 머리칼을 가다듬자.

이 땅에 어머니 나시고,
아버지 오곡 거두시어
우리 설 땅인지라.

충겨는 쓰라린 굴레에도
우리네 머리칼은 검정ियो.
만국기 찢기워도
우리의 기는 태극기일테라.

잊지 말자, 형제여.
검어진 손 씻고
금수저 쓸지라도
병든 허리가 썩어 들어가면
고통은 더할지니.

꿈에라도 그려볼까
우리 아이들 뛰노는 푸른 잔디.
그 위엔 한몸뚱이 된
우리 땅이 비치는 하늘가.
서툴게 튀어나오는
형제의 한나라 말씨를
그 누가 아름답지 아니 하다하리요...

언제고
백두산과 한라산이

마주보고 웃는 날에.
그날에는
시름에 굽은 허리 펴고
철벽을 걷을 터이니,
산노루도
복장단에 춤을 추리.
형제여!
우리 핏줄, 검붉은 손을
어찌 마다할 것인가!

달은 가슴 열고 눈을 크게 뜨자
우리의 눈물들이 한줄기로
한강수 되어 흐르는 날,

형제여
우리 어찌 그날에
행복하지 않다 할 수 있으리요!

자유바람

여 행 운

석정국민학교 6학년

아무도 몰래 자유롭게 날아 가고파
부는 바람 따라 고개를 저어
살레살레 흔든다.

오늘날의 아픔을
휴전선에 원망하며
38선을 기억하지만
바람만이 그 곳을 누빈다.

북쪽에서 네가 불면
나는 그 곳 쳐다 보리라.

북한의 향기
바람 가득 실고서
남한에 그윽히
뿌려만 다오

네가 북한으로 갈 때에
우리 민족의 뜻에 따라
우리 민족의 역량에 의해
자주적으로
전쟁이나 상대방에 대한
전복을 통해
이루어서는 안되는
평화적으로
민족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권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민주적 통합으로
평화통일을 위해
준비한 그 향기
가득히 담아가다
뿌려다 주고
북한의 향기
바람 가득 실어다가
뿌려만 다오

두 향기가
휴전선에서
맞붙었을 때
자유와 복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통일의 눈이
드디어 띄어질 것이다.

남북교류협력의 노력을
끊임없이 하여

남과 북이 하나되어
자유·평화·민주의
원칙 아래의
통일국가 !

오늘도
자유바람은
남해안의 노을을 등지고
북한을 향해
불고 있다.



통일이 오면

정 신 구

인천 계산중학교 1학년

지금은 2005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으로 갈라져 있던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북한의 파산지경에 몰린 경제를 도와주고, 많은 교류를 주고받으며 10여년간 노력한 끝에, 마침내 통일을 이루고야 말았다. 남한의 평화적, 대화적 통일이 드디어 성립된 것이다. 통일이 온 그날, 대한민국은 축제분위기였다. 마치 15년 전의 독일의 통일을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허리를 동여매고 있던 휴전선은 어느새 철거되고, 북한에도 높은 건물이 들어서고,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대도시로 발전하기 시작한 곳도 있었다.

특히, 이산가족의 기쁨은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텔레비전 등 매스컴에서는 이산가족의 기쁨을 생생히 알려 주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가슴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 한 민족, 한핏줄이 돌아올 수 없는 여행을 갔다가 50여년만에 다시 만나서 하나가 되었다는 생각에 말이다.

한창 통일의 기쁨을 맛보던 우리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발

견하게 되었다.

50여년. 그 긴 세월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이 50여년의 세월이 언어의 장벽, 생활방식의 쇠창살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우리가 '거위'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게사니'라고 했고, 우리가 서로 다른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언어의 장벽과 생활방식의 쇠창살도 한민족, 한겨레의 불타는 동포애를 막을 수는 없었다. 우리 한민족은 서로 돕고 격려해 가며 언어 교육과, 북한 주민들의 생활방식 개선에 심려를 기울인 것이다. 그 결과 세월이란 손해를 뒤로 하고 결국엔 언어의 장벽을 부수고, 생활방식의 쇠창살을 끊을 수 있었다. 마침내 하나의 완전한 나라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세월은 어느 새 많이 흘러가 있었고, 한국은 중진국에서도 밀려날 것 같은 정도로 경제, 정치, 과학기술 등 모든 면에서 부진해 있었다. 한민족인 우리는 하나로 뭉쳐서 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공업발달은 통일전보다 훨씬 쉬었다. 외국에서 공업원료를 사오지 않고, 북부지방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이용해 공업발달을 했으므로 외화도 절약할 수 있고, 땅이 넓어져 공장을 더 많이 세워 수출을 증대시켜 많은 외화를 획득했다. 또, 그동안 자원의 부족과 경지면적이 부족해 이루지 못했던 새로운 공업 기술이나 유전공학들을 북한의 자원과 땅을 이용해서 세계시장을 휩쓸고, 농가에서는 더 품질 좋고 맛있으며 생산량이 많은 개량작물을 이용해서 수출을 하는 등 많은 소득을 올렸다. 관광산업은 말할 것도 없었다.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인만큼 멋진 탐과 아름다

운 건축물, 웅장한 왕릉과 절 등의 문화재를 이용, 외화를 벌어들였고, 게다가 명산에 손꼽힐 만한 백두산, 한라산, 금강산, 설악산 등을 이용하여 외국 관광객들을 끌어들였다. 그리고 그 주위에 각종 놀이시설과 위락시설을 설치하는 데 힘썼다.

정치는 선진국의 민주주의, 자본주의를 써서 국민의 의견을 더욱 많이 반영했고, 식료품이나 의류 등 여러가지 물건을 넓은 땅과 풍부한 노동력을 이용해서 더욱 많이 생산해서 물가를 안정시켰다.

이렇게 한민족의 사람 모두가 함께 하나가 되어 서로 도와가며 열심히 노력한 결과, 아시아의 작은나라 대한민국은 드디어 선진국 대열에 한 마리의 푸른 청룡이 되어 길 수 있었다. 통일된 한민족이 오직 한겨레라는 근거 하나만으로 서로 힘모아 이룩해 낸 성과였다.

대한민국의 평화통일. 이런 소중한 일이 실행에 옮겨졌기 때문에 그들, 한 민족은 넓은 대한민국에서 즐겁게 살고 있다.

북한관에서

박 윤 미

명신여자고등학교 2학년

인천의 모든 것이 내려다 보이는 북한관에서 자연으로부터 선물을 받으며 앉아 있다.

너무도 시원한 바람, 잠전에 힘들게 올라 오던 생각을 하니 더욱더 이 바람이 시원하게 느껴진다.

북한관 내에서 북한의 실상을 보고 이곳에 나와 왔으니 자유라는 것이 새삼 중요하게 생각됐다. 나에게 불고 있는 이 바람이 북한의 청소년들에게도 불고 있을까? 그들도 나처럼 평화로움을 느끼고 있을까? 문득 '통일'이란 단어가 떠오른다.

국민학교때부터 가장 많이 강조되어왔던 단어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서 그 단어의 필요성이 점점 희미해졌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원인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그것은 아마도 이제는 모두가 통일의 가능성보다는 불가능성을 믿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또한 민족의 아픔을 체험한 세대들이 점점 줄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사회를 바라보는 안목이 좁은 우리 청소년들도 요즘은 통일보다는 과학화를 더 강조하고 있다고 느껴진다. 주위의 친구들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제는 통일에 대해 관심이 없다. 오히려 과학화가 더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한 친구는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냐는 질문에 이런 대답을 했다.

“난 사실 통일의 필요성을 별로 못느껴. 통일이 되면 오히려 불편한 점이 더 많을 것 같아. 경제와 문화의 차이로 사회는 혼란해질 것이고, 그들을 돕기 위해 국민들의 세금 부담은 커질거야. 그리고 정치면에서도 대립되고 통합이 안돼 어려울거야 그러면 과학화는 늦어지고 후진국이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냐? 난 솔직히 통일이 되는게 싫어. 이대로가 좋아.”

그 친구의 말을 듣고 한국의 모든 청소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 걱정이 됐다. 물론 처음에는 힘들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문제는 단기적으로 볼때이다. 장기적으로 볼때 통일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며 반드시 이루어야 할 당면 과제이다.

이러한 과제를 앞에 두고 우리가 통일을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이유 세가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는 이산가족 문제이다. 해마다 명절때면 가장 불쌍하고 가엾은 사람들이 있다. 고향을 앞에 두고도 못 가고 또한 가족의 생사를 몰라 눈물을 흘리는 이산가족들이다. 한 예로서 텔레비전을 통해 보도되었던 가슴 뭉클한 장면을 소개해 본다.

추석에 한 할아버지께서 수표를 흔들며 택시를 잡는 모습이였다. 그게 무슨 가슴 뭉클한 장면이냐고 하겠지만 그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 눈물 흘리지 않을 사람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평양까지 천만원, 평양까지 천만원”

얼마나 고향에 가고 싶으셨으면... 통일은 그러한 이산 가족들의 슬픔과 고통을 풀어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둘째는 사회, 경제 문제이다. 현재 남한과 북한은 엄청난 비용을 군사비로 지출하고 있다. 통일을 하면 그런 필요없는 지출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북한에 매장되어 있는 지하자원과 우리의 기술을 합하면 선진국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셋째는 국제평화를 위해서이다. 최근들어 러시아와 중국은 세계평화에 합류하고 있다.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냉전체제에서 벗어나 세계 여러나라에게 문을 열고 협력·교류하고 있다. 북한은 세계평화를 어느 한 나라가 깨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유독 자신들만이 고립되어 핵화를 선언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라도 통일은 꼭 이루어야 한다.

이 세가지 이유외에도 통일의 당위성은 여러가지가 있다고 본다.

그럼 우리는 통일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남북대화나 고위급 회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에 앞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북한을 얼마나 바로 알고, 이해하고, 받아들여려는 자세가 잘 되어 있는 것인가이다.

현재 북한의 모습을 보면 우리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은 일당독재체제이다. 모든 것을 하나의 당이 통치한다. 특히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북한의 주민들에게는 우리처럼 일의 의욕이 없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소량의 배급과 적은 액수의 봉급뿐

이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북한의 조선노동당은 그 이유를 착취계급과 피착취 계급을 없애고 평등하게 살기위함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당원들은 민주주의, 자본주의보다도 더 착취가 심하다. 언제나 풍족하게 배불리 먹고 사치와 낭비가 심한 생활을 한다. 그것을 세상 어느 바보가 평등이라고 말하겠는가?

북한의 교육도 당이 통제하고 지휘한다. 그곳의 학생들은 어려서부터 탁아소에서 혁명교육을 받는다. 어린학생들에서부터 고등학생까지 이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모두가 하나같이 당연하게 말한다.

“위대한 우리의 아버지 김일성·김정일 수령님!”

그리고 그곳의 학생들은 우리들처럼 여러가지 교재나 부교재로 공부할 수 없다. 오직 당에서 지정한 교과서로만 공부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교과서라는 것의 내용을 보면 정말로 기가 막힌다.

거의 대부분이 김정일과 당에 충성하라는 내용이다. 그리고 ‘까부시다, 썩 죽이다, 배뎀기를 찌르다’ 등의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잔인하고 비속한 말이 당연하게 수록돼 있다. 그런데 더 걱정되고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북한의 잠재력, 창의력 개발이 정지된 교육이 최근들어 더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세계 변화의 물결에 동요되고 사회적으로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일 것이다. 개성이 없고, 비판이 없이 똑같은 생각으로 생활하는 북한의 학생들이 불쌍하고 안타깝다.

이처럼 자유와 평화가 없는 북한의 모든 주민들과 학생들을 우리는 진실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의 현실을 냉철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만약 북한에 대해 전혀 모

르는 상태에서 통일이 됐을 경우에는 문화적, 경제적으로 정말 힘든 점이 많아질 것이다. 불평도 많아지게 될 것이고 갈등도 심각해질 것이다. 진정한 평화통일을 위해 우리는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주어야 한다. 그들도 우리와 한 민족이기 때문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 우리는 한 핏줄, 한 민족이다. 오랜 역사의 흐름 속에 단일민족으로서의 맥을 이어나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지금 북한관 잔디밭에 불어오는 저 자유와 행복의 바람을 북한의 청소년들과 하나되어 맞이할 그날을 위해...

북한에 있는 내 또래의 아이에게

이 유 정

석정국민학교 4학년

내 또래의 북한 친구들에게
이 곳은 개나리, 진달래가 서로 자기의 모습을 뽐내려고 하는 계절이야.

둘리 음악에 맞추어 4학년 전체체육시간에 무용하려고 교실에서 우리끼리 연습하다가 문득 TV에서 본 북한 어린이의 무용을 생각하고 웃음이 나왔다.

생긴 것은 참 예쁘고 감직했는데 얼굴 표정이 꼭 길에서 볼 수 있는 마네킹 모습이더구나. 우리엄마께서는 나보고 여자아이가 뻗뻗하게 허수아비 춤을 춘다고 홍보시기에 “엄마, 내 춤이 북한 아이들 춤 같아요?” 하고 여쭙어 보니까, “왜 하필 거기에 비교하니?” 하시며 깔깔깔 웃으셨어. 내가 보기에 너희들은 너무 얼굴표정을 꾸미는 것 같더구나. 춤은 마음이 즐거울 때 저절로 움직일 수 있는 몸 동작이라고 생각했거든...

내가 살고 있는 인천직할시도 올해부터 인천광역시로 바뀌어졌다. 세계화에 발 맞추어 주변의 강화, 옹진 등 작은 섬들이 합쳐져서 미래의 국제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래. 그

래서 내 친구들은 영어도 배우고 컴퓨터도 배우는 등 바쁜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그 곳은 어디니?

며칠 전 TV에서 보니까 미국과 평양이 전화가 개통되었는데 북한은 전화가 별로 없다는 뉴스를 보았어. 난 이해가 잘 가지 않았어. 우리는 한 할아버지의 자손인데 이곳은 모든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고 그 곳은 춥고 배고픈 세월을 살아야 하고... 왜 이래야 하는 걸까? 너희들은 이해할 수 있니?

봄 방학때 대전 과학공원에 가서 2000년대의 생활을 상상하고 왔었어. 우리 민족은 남에게 피해 입히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 우수한 민족인데 우리 같이 힘을 합해 2000년대의 과학기술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멋있고 훌륭하게 만들어 나갈 수는 없을까? 나에게 부족한 것은 너희들이 도와주고 서로 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자. 그러면 우리가 어른이 되었을 때에는 우리나라 한글이 세계 공통어가 될 수 있을텐데... 힘들여 영어 배우지 않아서 얼마나 좋겠니?

난 책도 더 많이 읽고 공부도 열심히 할 거야. 우리가 서로 합쳐졌을 때 난 결코 이기적인 생각으로 남을 괴롭히는 행동은 하지 않을 거야. 나보다 못한다고 홍보는 일도 없을 거고...

우리 한 5년쯤 후에는 금강산에서 통일에 대한 글짓기가 아닌, 다른 제목으로 글을 쓸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때는 내가 조사해 놓은 우리고장의 사적지를 자세히 보여줄게.

안녕!

1995년 5월 2일

북한관에서

서 미 진

부평여자중학교 3학년

‘통일!’ 통일이란 말은 내가 태어난 이래 오랫동안 들어온 말이건만 그말의 의미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통일 글짓기 대회에 학교대표로 뽑혔을 때,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의식하지도 관심을 쏟지도 않았던 통일문제에 대해 논한다는 것이 걱정스럽게 느껴졌고, 이런 글짓기를 통해서만 이 중요한 문제를 의식한다는 것이 글쓰는 일에 앞서 정말 부끄러웠다.

국민학교시절, 담임 선생님께서 칠판 가득한 그림과 함께 열정적으로 6·25나 휴전을 설명해 주셨을 때 어린 마음에 그 겪지도 못했던 엄청난 사실이 다시 되풀이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앞섰고 그저 막연하게나마 통일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중학생, 엄연히 어린아이라는 칭호를 떼어버린 지금, 비록 깊은 생각은 아니지만 그래도 통일이 그리 쉬운 문

제가 아니라는 생각과 매스컴에서 보도되는 남북교류를 보며 나 나름대로의 느낌을 가졌다. 그리고, 이제 곧 우리가 그 큰 우리민족의 고민을 짊어져야 한다는 책임감도 느껴진다.

완연한 봄을 느끼게 하는 수봉공원 북한관 잔디밭에서 나의 통일에 대한 견해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사실 통일이라는 것에 대해 내 또래의 아이들은 거의 관심이 없다. 현실적인 시험이나 진학 문제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고 아니면 연예인이나 그 밖의 취미활동에 푹 빠져 있어 통일이라는 말이 머리속에 들어갈 공간이 없다. 가끔 교과서나 홍보 VTR을 보고 빠져린 민족애나 통일에 대한 염원을 진하게 느끼는 친구가 몇이나 될까?

통일, 혹은 남북한 문제에 우리들이 큰 관심을 갖지 못하는 건 우리가 빠져린 동질감과 민족애를 느낄 기회가 없었거나, 그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 못했기 때문일거라고 생각한다.

어른들은 통일의 필요성을 자원문제, 경제발전문제, 국방문제 그리고 한 민족동포가 한 나라로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으로 말한다. 그러나, 그렇게 이론적으로 배운다고 통일에 대한 필요성이 마음에 와 닿지는 않는다. 현재 우리는 따뜻한 집에, 맛있는 밥에, 부모님의 안전한 보호를 받으며 뭐 특별히 불편한 것이 없이 살고 있다.

그렇다고 북한에 얼굴이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북한에 그렇게 가고 싶은 것도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뜨거운 민족애나 동질감을 느낀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가끔 TV에서 그 옛날 처참했던 상황을 보거나 그것을

증언하며 이복에 두고온 친지나 가족이 보고 싶다며 눈물짓는 고생 주름이 가득한 할아버지를 볼때, 또 그 시대를 살았던 어른들의 말씀을 들을 때 뭔지 잘은 모르지만 통일이란 것은 분명 되야한다는 느낌이 들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곤 한다.

이것이 우리들이 조금이나마 느끼는 통일의 필요성의 건 더기일 뿐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들은 마냥 ‘나는 그랬던 시대에 대해 별 감정과 느낌이 없다.’ ‘그런 골치 아픈 생각은 하기 싫다.’는 이유로 방관하고 피할 수는 없는 일이다. 좋건 싫건, 내가 우리 가족으로 태어난 것이 운명인 것처럼 통일의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때 커서 생각하면 된다는 마음보다는 지금, 통일에 대한 깊은 사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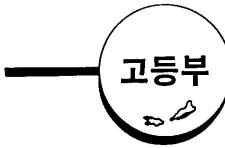
계속 이런 식으로 통일문제에 대해 방관적이라면 어른이 되었을 때 통일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게 될 것이다. ‘만가지 일은 모두 마음에 달렸다.’는 말이 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오랜시간동안 나라를 잃은 채 떠돌아 다녔지만 뭉쳐야 한다는 마음 하나만으로 국가를 이룩했고 독일의 그 거대한 베를린 장벽도 국민들의 뜨거운 민족애 하나로 무너질 수 있었던 것을 본다. 이런 거대한 힘을 가진 마음이 사라진다는 건 우리 민족, 우리 선조들의 고귀한 피눈물과 고통을 허사로 만드는 일 일 것이다.

나이 16살에 비록 내가 통일에 대해 할 수 있는 건 평화적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신념을 다지는 일이지만 내가 자라면 이 신념 역시 우리 민족의 통일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할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믿는다. 또 이런 생각들이 모인다면 우리 민족의 통일은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

라고 역시 믿는다.

북한관 옆의 공원놀이기구가 있는 곳에서 요사이 한창 유행하고 있는 정신없는 노래가 흘러 나온다. 웬지 계속 있으면 정신이 저절로 끌려갈 것만 같다. 마치 우리 청소년의 중요한 생각들과 고귀한 느낌을 지워버리는 무엇과도 같다는 생각이 든다. 아무래도 실내에 들어가야겠다. 이 대회를 계기로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는 내 생각을 차분히 정리할 수 있어 정말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북한관에서

이 지 현

인천 영종상업고등학교 3학년

제 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더불어 1945년 38선이 확정되고 1948년 남한의 총선거와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의 의원 선거로 한반도에 대립된 두개의 정부가 탄생함으로써 남과 북의 분단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그 후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진영과 구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진영간의 냉전. 구조는 우리의 분단상태를 반세기가 넘도록 지속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동족으로서 언젠가는 함께 살아야 할 동반자이다. 그러나 북한은 현실적으로는 우리의 안보를 끊임없이 위협해 온 실체이기도 하다. 때문에 북한은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야 할 동반자인 동시에 방심할 수 없는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제 남과 북은 세계적인 긴장완화의 추세에 따라 대결과 반목을 벗어나 화해와 협력을 증진해 나가며 평화속에서 공존·공영을 의식해야 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다.

북한에 대한 환상적 시각과 함께 냉전시대의 고정관념도 함께 버릴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북한주민과 정권을 상대로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함과 동시에 북한

정권의 대남혁명전략으로부터 오는 안보상의 위협에도 대처해 나가야 하는 이중적 정책을 펴 나가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이 점을 국민들에게 올바르게 이해시켜 줌으로써 어느 쪽에도 크게 치우침이 없는 균형적 시각을 항상 견지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아울러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 중요한 선결과제는 바로 북한의 변화이다. 북한은 이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책임을 벗어날 수 없으며, 내부개혁과 대외개방이라는 세계사의 큰 흐름을 결코 거역할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은 아울러 대남관계에 있어서도 혁명노선이 결코 통용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여 우리와 함께 화해와 협력의 단계를 열어 나가야 할 것이다.

통일의 주체는 남·북한에 살고 있는 민족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되어야 한다. 통일환경 조성을 위해 외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통일은 우리 민족 구성원 모두의 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민족문제를 민족구성원의 손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민족자결의 원칙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통일문제는 우리 민족전체의 운명이 걸려 있는 기본문제이다. 따라서 통일의 목표나 방법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일은 어느 개인이나 단체, 특정한 계층이나 계급, 정권에 의한 전용물이 되어서는 안되며, 민족구성원 일부만의 이익이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되어서도 안된다. 7천만 민족구성원 모두가 주체가 되어 함께 결정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통일이전에는 남북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실정을 이해하는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함으로써 민족구성원들이 통일에 대비하는 자세를 갖추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 사회적으로는 남북이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반정책을 추진하여 나가는 한편, 통일교육도 적극 활성화하여야 할 것이다.

남북연합 단계에 이르러서는 민족동질성 회복과 남북한 경제·사회에도 통합을 모색함으로써 남북 사회·문화·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나아가 통일국가 수립에 대비한 내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공동체 형성을 위한 노력은 각 부문별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제부문은 먼저 간접 교역에서 출발하여 직교역의 과정을 거친 후 경제적 편의시설을 상호 제공하고 제3국과의 합작투자 사업이나 자원 공동개발 사업을 추진한 뒤 마지막으로 자본 및 기술합작의 단계에 이르는 과정이 적절하다.

학술·과학부문에 있어서는 자료교환·남북학자의 접촉과 교류로부터 시작하여 남북한 공동조사나 연구사업을 수행한 후 정부차원의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문화·예술부문에서는 먼저 자료교환 및 간접적 접촉을 추진한 뒤 공동조사·연구를 추진하고 마지막으로 문화·예술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등 공동합작 사업을 전개하도록 하며 체육부문은 먼저 친선 시범경기를 개최하는 등 교류개발을 구축한 후 단일팀을 구성하는 공동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국제체육 행사 공동유치 등 교류·협력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희망과 확신 그리고 인내를 가지고 우리앞에 가로놓인 과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감으로써 통일을 향해 작지만 의미있는 발걸음을 꾸준히 내딛으며 그리 멀지 않은 조국의 통일을 꿈꾸며 펜을 놓는다.

광주북한관 통일글짓기 대회 입상작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상

- 초등부 북한학생들에게 보내는 글/김승지
- 중등부 통일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이용재
- 고등부 통일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이선화

광주광역시교육감상

- 초등부 비무장지대의 메아리/편재희
- 중등부 통일로 가는 길/김두희
- 고등부 통일을 위한 노력/윤세민

통일연수원장상

- 초등부 북쪽의 친구에게/김슬기
- 중등부 내안에 심은 통일의 씨/윤아롱
- 고등부 그날/황정은

북한학생들에게 보내는 글

김 승 지

여천서국민학교 2학년

안녕? 난 남한에 있는 승지라고 해. 우리의 소원은 너희와 함께 맘껏 뛰어노는 것이야.

난 뉴스에서 우리 남한에서 쌀을 보내주었다고 보았어. 우리가 너희를 도와 준 것 같다.

통일이 되면 좋을거라고 생각해. 같이 만나 놀고 싶어. 2시간만이라도 꼭 놀고 싶어. 너희 집에도 가보고 싶고, 너희 부모님도 보고 싶어. 우리 친구들이 너희들에게 편지를 보내려고 해. 꼭 우리 편지를 봐줘. 우린 너희가 살고 있는 북한에 가는 게 소원이야. 우리는 서국민학교에 다녀. 2학년이야. 난 무슨 학교에 다녀? 꼭 너희를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

난 지금 글짓기 대회에서 너희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 광주에 와서 쓰고 있어. 하늘이 참 맑아 하얀 구름이 보여. 너희들의 하늘도 참 맑을 것 같다. 흰 구름이 움직여. 난 왜 움직이는지 몰라. 너희들도 모를거야. 우리가 보면 나무가

참 많아. 우린 너희와 같아. 몸은 다 똑같다고 생각해. 다른 학교에서도 모두들 참여를 많이 해. 너희들이 보면 많이 보일거야. 1, 2, 3, 4, 5, 6, 이렇게 동생들도 나오고 언니들도 많이 나와. 우린 곤충을 잡으면 놓아주어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놓아준다.

우리 남한에는 도둑도 많이 있어. 우리들이 너희들을 꼭 초대할 하고 싶어. 오늘 날씨가 참 맑아. 놀이기구도 우린 많이 타봤어. 공원도 많아. 너희들과 같이 가보고 싶어. 회장이나 부회장을 뽑는 것이면 의논하는 법이 있어.

우린 공부를 많이 해. 숙제도 많이 하면서 문제집도 해. 너희는 이렇게 안할거라고 생각해. 대회에서 꼭 1등이 되고 싶어. 난 지금 풀밭에서 글짓기를 하고 있어. 네가 와서 도와주면 좋겠어. 친구들이 있지만 도와주질 않아. 난 6학년 언니들이 제일 부러워. 빨리 끝내고 놀기 때문에 제일 부러워. 제목이 별로 좋지 않지만 상만 받았으면 좋겠어. 1반, 2반, 3반 친구들이 참여하였어. 팔이 아프지만 너희들에게 이렇게 땀을 흘리는 모습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덤지만 너희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야. 꼭 참여하려고 이렇게 글짓기를 하는 것이야. 그만 연필을 놓을께. 그럼 안녕!

1995년 9월 16일

남한의 친구가

통일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

이 용 재

진흥중학교 1학년

우 리들은 ‘남북통일’이란,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것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통일에 대한 자세와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우리들의 통일에 대한 기대는 크지만 열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럼 이제 통일에 대한 바람직한 준비 태도와 통일이 되었을 때 문제점 등을 알아 보도록 하자.

산에 오르는 사람들은 먼저 산 아래에서 베이스 캠프를 친다. 또한 전문 산악인일수록 등산 계획을 철저히 짠다. 통일도 마찬가지이다. 독일은 처음에 동서간에 편지를 주고 받았다. 그 다음에는 전화를, 왕래를 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통일을 이룰 수 있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통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통일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차근차근 쉬운 것부터 해야 한다. 쉽게 예를 들어보자. 우리집은 아파트이다. 그래서 매일 계단을 올라간다. 한 칸씩 차근차근 올라가면 쉽게 갈 수 있다. 하지만 3~4칸씩 올라가면 힘이 들 뿐더러 헛디디게 될 경우 위험하다. 통일도 마찬가지로 작은 것부터 해 나가야 한다. 즉 남과 북은 서로 화해와 협상으로 이질감을 극복해야 한다.

둘째, 남북 국민간의 열의가 필요하다. 독일은 동서 국민들이 힘을 합쳐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렸다. 우리들도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욕구가 투철하다면, 남북을 왕래했던 기차도 다시 움직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북한의 실상을 잘 알아야 한다. 우리들은 텔레비전에서 북한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자주 봐서 북한 사람들의 실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하자.

하지만 철저한 준비로 차근차근 통일을 이루었다고 해 보자. 그러면 이산가족 상봉, 발전되는 경제 등 좋은 점도 많겠지만 나쁜 점도 있다. 45여년 동안 단절되었던지라 생활의 가장 필수인 언어가 많이 다를 것이다. 또한 사상이 달라, 생활하면서 생기는 마찰도 많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해와 양보, 협조 등 동족애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통일은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역사는 옛날부터 통일되었다가 분열되는 것을 몇번 되풀이하였다. 하지만 통일신라, 고려, 조선 등은 무력으로 통일을 해 왔다. 그렇지만 남북통일은 다르다. 우리의 남북통일은 남의 나라가 간섭하지 않는 자주적 통일, 무력을 쓰지 않는 평화적 통일, 그리

고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이 유지되는 민주적 통일이 되어야 비로소 참다운 통일이 된다.

이제 우리가 차근차근 통일에 대한 준비를 잘 해나가고, 북한의 실상을 잘 알아 이해와 양보, 협조 등 동족애를 발휘하여 자주적 통일, 평화적 통일, 민주적 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면 한 민족간에 전쟁으로 갈라진 남북한 국민들과 영토, 상처등을 회복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민주발전, 경제번영, 사회정의, 국민복지를 실현해 나가 21세기의 선진국의 대열에 합세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단결하여 노력하도록 하자.

통일에 대처하는 우리자세

이 선 화

석곡고등학교 2학년

『동토의 성』이라는 말이 언니의 입으로부터 흘러 나왔을 때는 그저 스치듯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을 뿐이었다. 그 말을 다시 생각하게 된 것은 최근이다. 내 친구도 그와 똑같은 말을 하여 머리속에 조금밖에 자리 잡지 못했던 희미한 기억의 ‘동토의 성’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내게 했기 때문이다.

“통일이 되면 좋겠니?” “동토의 성을 이젠 찾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묻는 친구에게 난 아무말도 할 수 없었다. 『동토의 성』이 무슨 뜻인지도 알지 못했기에. 결국 난 무지에 의한 창피함을 무릅쓰고 그 친구에게 ‘동토의 성’이 무슨 뜻인지 묻게 되었다. 그 친구의 설명을 통해서야 ‘동토의 성’의 뜻이 반세기의 세월동안 굳게 닫혀 가깝고도 먼 나라로 자리 잡고 있는 또 하나의 조국 북한을 일컫는 말인 것을 알았다. 그 친구는 몇몇 아이들에게 통일에 관해 물어 보았는데, 통일의 절실함을 깨닫고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애들이

없어서 실망이 컸다고 한다. 솔직히 나 역시 통일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할 만큼 자신있는 게 아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너도 통일을 바라지 않는 거니?’라고 말했던 친구의 쟁쟁한 목소리에 괴로워하면서 통일에 대해 지금까지의 추상적인 사고가 아닌 구체적인 생각들을 해보았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하여 통일, 통일을 이루자!” 국민학교때부터 들어왔던 단조로운 가락에 애절한 가사이지만 그 가사에 들어있는 절반만큼의 감정도 내겐 들어있지 않았다. 해마다 유월이 오면 ‘호국보훈의 글짓기 대회’가 교내에서 열리는데, 그저 입에 발린 소리로 통일이 되면 좋겠느니 하는등 어릴적부터 들어왔던 말들을 머리속으로 꼬집어내어 기계적으로 써서 냈는데, 상이라도 받았을라치면 나의 양심은 고개를 들고 마음이 괴롭기만 하였다.

이것은 나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청소년이 대체적으로 그렇다. 언젠가 뉴스에서의 보도를 보니 중·고등학생의 70%정도가 통일을 바라지 않고, 20% 정도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했고, 단지 소수의 청소년만이 통일을 바란다고 했다. 통일에 관심없는 나에게도 그것은 대단한 충격이었다. 분단과 전쟁을 겪지 않는 세대인 우리는 학교에서 통일에 관해 특별히 교육하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실향민이나 이산가족이 사는 경우도 흔하지 않아 통일에 대해 직접적인 관심이나 그 당위성에 대해 절실함을 느끼지 못한다. 이것이 우리 현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속히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자각하기 시작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통일에 대해 더욱 관심없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우리 청소년이 주목해야 할 것은 반세기의 세월동안 초기

의 반공과 멸공의 자세가 지금의 대화와 타협이라는 새로운 자세로 변화한 것이다. 우리도 여기에 기반을 두고 우리의 자세를 확고하게 해야한다. 공존공영과 애국애족의 자세를 가지고 새로운 세대로서의 자존심으로 우리가 통일을 이루어야한다는 자립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민족 전체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복지가 신장되어 민족구성원 모두가 골고루 잘 살게 되어야 한다는 민족복리의 정신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감과 과감한 추진력이다.

우리는 북한과의 문화적 이질감이나 이데올로기의 차이를 과대평가해서는 안된다. 앞서 말한 자세를 확고하게 하여 민족적 동질성으로 포용해야 하는 것이다.

‘청소년은 나라의 희망이요, 또한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주역이다.’라고 누군가 말했다. 그러므로 통일은 우리 청소년의 몫이며 책임과 의무이다. 우리는 우리가 앞세대를 비판했듯이 우리의 다음세대가 우리를 평가하기 위하여 눈길을 돌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더군다나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분단 45년의 역사와는 비교가 안 될 오랜시간 동안을 함께 살아온, 같은 피를 나누고 같은 말을 쓰는 우리의 또 하나의 분신임을 기억하고 그 조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통일을 앞당길 지름길이 아닌가 한다.

『동토의 성』이라는 단어 덕택에 나는 처음으로 통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한 것 같다.

비무장지대의 메아리

편 재 희

풍향국민학교 6학년

철책선 건너 펼쳐진 산하가
낮설지 않음은
처음부터 하나인 까닭일까 ?

총뿌리 겨는 세월 50년
잡초만 무성하다.

주인 잃은 월정역은
적막만 가득한데,
녹슬은 철마 위에
이름 모를 새 한마리.

내 마음을 읽었는지
북녘으로 날아간다.

통일로 가는 길

김 두 희

각화중학교 1학년

남북이 분단된 지도 어언 50여년이 지났다. 일제치하에서 벗어나자마자 우리국민들이 꿈꾸어온 단일국가, 단일정부의 꿈은 38선에 의해 완전히 깨져버리고 말았다. 그후 5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배달민족의 단일국가의 꿈은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민족끼리 서로 죽이고 죽이는 6·25를 겪었고 휴전선을 경계로 서로를 총부리로 겨누고 있는 현실에 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남북적십자회담, 남북고위급회담 등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은 물론 조국의 평화통일까지 추진하려고 했던 많은 노력도 북한의 무리한 요구와 거절로 지금까지는 많은 발전이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정부가 현재까지 계속 북한에 지원을 해주고 북한과 통일된 조국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부터 우리는 통일을 이루어야 할 이유와 통일을 이루기 위한 우리 중학생들의 자세를 알아보기로 하자

우리가 통일을 이루어야 할 이유는 남한과 북한은 같은 민족인 배달민족이라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고조선에서부터 지금까지 한반도 안은 물론 만주와 연해주까지를 활동무대로 두며 배달민족의 고유국가를 이루어 왔던 것이다. 그동안 우리 겨레는 여러번 같은 민족끼리 싸우기도 하였지만 외세의 침략이 있을 때마다 우리 민족의 단합된 힘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않고 지금까지 견뎌온 것이다. 또 우리민족의 피속에는 배달민족의 혼이 담겨져 있고 우리민족의 머리 속에는 배달민족의 정신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다른 이유로는 우리민족이 단합될 때 상상도 하지 못할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한번 이야기를 하였지만 외세의 침략때 보여 주었던 그 엄청난 힘은 실로 대단한 것이었다. 거란족으로 이루어진 요나라의 수십만 대군이 공격하였을 때 우리민족은 적은 군사로 적을 물리쳤으며 우리민족의 뛰어난 지혜와 협동심이 여러모로 발휘되었다. 또한 원나라와 일본, 청나라의 침입때 계급과 남녀노소를 따지지 않고 협동하여 보여주었던 그 큰 의지와 지혜, 협동심은 아직도 우리의 눈앞에 생생히 살아있는 것이다. 그리고 근래에 세계탁구대회에서 남북이 단일팀으로 출전하여 보여 주었던 그 잊을 수 없는 쾌거와 청소년 축구대표의 8강 신화는 아직까지 우리의 기억속에서 생생히 남아 있는 것이다.

마지막 이유로는 남북이 통일되면 경제적으로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남한에는 식량이 풍족하고 북한에는 식량이 부족한 편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에 쌀을 지원하고 있다. 통일이 되면 남한이 북한에 부족한 쌀을 지원해 줄 수 있으므로 제3국에서 수입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또 현재 북한은 자원이 많은편이지만 경공업

을 비롯한 공업기술이 아직 많이 뒤떨어지는 편이고 우리 남한은 공업기술이 세계 수준에 이르지만 자원이 많이 부족한 편이다. 그러므로 남한의 부족한 자원을 북쪽에서 대주게 되면 각 지방에서 나름대로의 산업이 발전하게 되고 외화낭비를 막을 수 있다.

이러한 여러가지 이유때문에 우리는 꼭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마음가짐과 자세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우리는 학생의 본분인 학업에 충실하여 미래의 과학기술과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과학기술과 산업이 발달하면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어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통일은 가능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은 현재 경제성장이 뒷걸음치고 있고 그때쯤 되면 북한은 경제적 불안으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와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둘째, 자연을 보호하고 우리들의 건강에 힘써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외교능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 청소년들의 정신과 신체가 건강하면 국력이 튼튼해지고 나라의 미래가 밝아진다. 또한 외교능력을 향상시켜 세계 각처에 우리나라의 분단된 현실을 알려 국제적인 도움을 받고 통일을 이룰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에 불과하지만 앞에서 말한 여러가지 방법을 잘 실천하게 되면 미래에는 선진국, 또한 복지국가 대열에 서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 통일에 대한 자각심을 갖고 통일을 위해 노력한다면 통일의 그날은 그다지 멀지만은 않게 느껴질 것이다.



통일을 위한 노력

윤 세 민

광주 진흥고등학교 2학년

얼마 전, 신문 지상에서 ‘북한 다루기’라는 어구를 접한 적이 있다. 공감이가는 표현이 아닐 수 없다. 현재, 대내적이나 대외적으로 거의 모든 분야에서 남한이 북한을 압도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통일은 남한이 북한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남한 측에서는 북한의 전쟁 도발 가능성을 전혀 무시하진 못한다. 이는 군사력에서만큼은 남한이 북한을 앞서지 못하지 않느냐는 인식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남과 북은 팽팽한 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 이렇다 할 통합된 통일 방안이 수립되지 못한 까닭이다. 그렇다면, 통일을 위해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이며, 또한 우리의 바람직한 자세는 무엇일까?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지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전민족적 과제인 통일 문제에 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통일에 대비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들 중, 먼저 대내적 입

장에서 고려해 보자. 지금 남한의 정치는 매우 불안정하다. 지역 감정이 심화되어 가고, 사회계층간의 불화도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악조건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정치적 불안정은 통일 한국에까지 미칠 우려가 크다.

또한, 경제적 안정이 필요함을 들 수 있겠다. 한 예로, 독일을 예로 들어 보자, 그토록 안정되어 보이던 서독의 경제력으로도 통일 후의 독일에서 발생한 경제적 혼란을 수습할 수 없었다고 한다. 하물며 현재 남한의 경제력만으로 통일 후의 북한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큰 혼란을 어찌 쉽게 감당하겠는가.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주체적 통일의식의 확립을 들 수 있다. 과거 약소국 시절에 주변의 열강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었던 아픔을 상기해야 한다. 우리 자체내에서 확고한 통일의식과 체계적 통일방안을 가지고, 주체적 통일을 이룰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대외적 문제의 해결에 대해 생각해 보자. 북한의 현실로 시선을 돌려 보면,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경제력이다. 국가 간 G N P 비율이 6:1 이상이 되면, 경제적으로 경쟁이 안된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의 남·북의 비율은 20:1이 넘는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는 북한 경제의 피폐함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리라.

타국간 관계로 시야를 넓혀 보자. 현재의 세계는 '화해의 시대'에 돌입하고 있다. 이런 시기에 유일한 분단국으로 남은 우리는 국제화 시대의 조류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통일을 위해 해결해야 할 가시적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그렇다면, 통일을 앞둔 우리의 바람직한 정신 자세는 무엇일까?

첫째, 우리는 단일 민족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현재,

심각한 상태에 놓인 남·북간의 이질화 현상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둘째, 폭력을 부정하는 민주적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개방적이고 자유민주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는 인간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자율성을 지향해야 한다. 마치, 현재의 지방 자치제의 실시처럼 말이다.

마지막으로 남·북 어느 한 체제의 붕괴가 아닌 양측간의 중간 체제의 성립을 추구해야 한다. 흡수 통일보다는 합의통일을 지향함이 단일민족국가인 한국에 있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우리는 근래에 통일된 국가들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 베트남의 통일은 양국 사이에 전혀 방문이 없던 채로 이루어져 적화통일처럼 느껴지는 반면 동·서독의 자유로운 왕래 이후 통일된 독일은 일체감 조성이 대단히 쉬웠다고 한다. 우리는 인적 자유왕래가 상호간의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데 일조함을 상기해야 한다. 특히,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은 우리로서는.

이제, 통일을 가능성만을 가지고 노력하는 개념으로 인식하는 차원을 넘어서야 할 때다. 화해 무드로 접어들고, 주변국들의 정황이 통일에 협조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는 이때에, 민족적 숙원을 하루빨리 이룩해야 하는 것이다. 요컨대, 여행을 즐기는 자리에서조차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외치는 우리민족, 수학 여행을 금강산으로 떠날 그날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북쪽의 친구에게

김 슬 기

산수국민학교 6학년

안녕? 친구야. 그 곳도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니? 추석을 일찍 지냈다고 벌써 가을인가봐. 추석은 잘 지냈니? 이번 추석은 보통 그냥 추석과 다른 것 같아. 광복 후 50번째의 추석이잖니?

광복50년의 기쁨과 같이 분단50년의 슬픔을 우리는 맛보아야만 했지. 통일 전망대에 서서 눈앞의 고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할머니, 할아버지... 그 장면을 보며 난 정말 안타깝기도하고 슬프기도 했어. 얼마나 가족이 보고 싶을까? 난 학교에서 한 시간만 지나도 할머니, 동생이 보고 싶어지는데 너도 그렇지?

남쪽의 TV 프로그램중 어느 코메디 프로그램에선 북쪽 사회를 배경으로 이야기를 꾸며 방영하고 있어.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웃으며 즐거워 하지. 그렇지만 난 즐겁지 않아. 그건 바로 너희 북쪽과 여기 남쪽의 달라져 가고 있는 슬픈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걸. 너희 사회가 우리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고 우리 생활이 너희에게 비웃음을 받지 않도록 서로를 이해하고 많은 교류를 하는 것이 통일을 이루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

학교 도서관에서 ‘서울친구 평양친구’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어.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어 통일 국민학교가 세워지고 휴전선의 철조망을 녹여 철탑도 만들지. 남쪽과 북쪽의 아이들은 조금씩 다른 말과 다른 생활 그리고 가지고 있는 생각의 차이로 많은 어려움에 부딪치지만 그 벽을 허물고 우정을 쌓아 간다는 내용이야.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간다면 통일의 그날 우린 만나서 조금도 낯설지 않을거야.

세계를 한번 둘러보렴. 그렇게 통일을 바라던 독일도 베를린 장벽을 허물고 하나가 됐잖니? 우리도 할 수 있어. 얼마든지.

세종대왕께서는 문화어, 표준어인 하나의 한글을 만드셨고 단군께서도 북조선, 남한이 아닌 하나의 온 겨레를 위해 이 나라를 세우셨어. 우린 둘이 아니야 하나라구. 우리의 몸속에는 똑같은 한 겨레의 피가 흐르고 있어.

친구야 잊지마, 우린 하나라는 것을. 그리고 서로를 바르게 이해하며 서로를 잊지 않는 길만이 국민학생인 우리가 할 수 있는 통일의 길이라고. 통일이 되면 난 너와 함께 백두산, 금강산으로 여행을 하고, 넌 나와 함께 서울의 63빌딩 구경을 가는 거야.

우리의 호랑이 허리를 갑갑하게 죄고 있던 허리띠를 푸는 날, 온 민족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휴전선을 없애는 날, 태

극기를 흔들며 만세를 외치자! 그럼 잘있어. 안녕 -

1995년 9월 16일

- 통일을 기다리며 슬기가 -

내안에 심은 통일의 씨

윤 아 룡

광주서광중학교 3학년

한뫼은 하늘 조각길 걸어
이승을 떠나가신 그 분은
내 안에
새하얀 통일의 씨 하나를
심으셨습니다.

무구한 대지의 아늑한 숨결.
백두와 한라의 따스한 미소로
조금씩 꿈꿔워갈 통일의 씨앗.

쓰라린 아픔의 세월을 뚫고
통일염원의 이슬을 머금어
하나 둘 꽃피워갈 통일의 싹들.

들이 아닌 하나로
하나가 되라 하십니다.
하나이어도
서글프고 가슴시린 일들이

너무도 많다 하십니다.

통일의 열매 맺어
하나라는 이름으로 만나는 날엔
한반도를 비추이는
한밝은 별빛으로 남으려다 하십니다.

그 날

황 정 은

광주여자고등학교 2학년

마른 풀 내음 나는
하늘 높은 날
그 날이었음 좋겠다.

여문 가을빛 하늘 아래
우린 한 국기를 내걸고
한 노래를 부르는거야.

노랫소리 북을 향해
노랫소리 남을 향해 갈 때

한라부터 백두까지의 우리땅이
우르릉 용솟음을 치고
굽었던 큰 강물
새 길을 내며 달리겠지.

우리 함께 용서하고
부둥켜 안을 그 날

마른 풀 내음 나는
하늘 높은 날
그 날이었음 좋겠다.

제주북한관 통일글짓기 대회 입상작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상

초등부 할아버지의 웃음/박은희

중등부 할머니를 위해서/한은정

고등부 당신을 향해/강정희

제주도교육감상

초등부 보고싶은 큰 할아버지/홍성연

중등부 통일의 이름으로/고영경

고등부 소녀의 그림/조희자

통일연수원장상

초등부 통일이 오면/고은희

중등부 그날이 오면/고미라

고등부 사랑하는 북녘누이에게/강민구

할아버지의 웃음

박 은 희

한림국민학교 5학년

새싹이 파릇파릇 눈뜨는 땅에
푸르른 우리들 소망이 번져
산과 들이 날마다 살이 쩌 간다.

우러러 고개들고
팔을 벌리면
품 안 가득 한아름
너른 하늘이 안겨오고

흰 구름 몇점
느릿느릿 북쪽으로 흐르는 모습

허연 수염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얼굴이
그 곳에 있었다.

한 평생
두고 온 할머니와 고향을 그리며

조금씩 넉넉해지는 살림을 오히려
미안해 하시던
우리 할아버지

잇을 뻔 했다.
할아버지의 주름살·마디에
새겨진 그늘

우리들의 배부름이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까지를
까맣게 잊고 지내게 할 뻔 했다.

문득, 구름 얽게 번지며
어느날, 저녁의 텔레비전 화면을
그려낸다.

북녘땅에 쌀을 보내주게 되었다고
항구를 가득 메워 손을 흔들며
환호하는 사람들

할아버지의 조용한 웃음도
그 틈에 끼어 있었을 것이다.



할머니를 위해서

한 은 정

함덕중학교 2학년

“애 은정아, 얼른 나와야지?”
문밖에서 어머니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온다.

“네, 나가요.”

얼른 눈가에 고인 눈물을 닦고 옷차림새를 매만지며 일어난다. 오늘은 너무 힘든 하루였다. 거울을 본다. 머리위에 꽃힌 하얀 리본이 나를 더 슬프게 만든다. 다시 한번 울음이 쏟아지려 하는데 꼭 참고 밖으로 나간다.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얘기를 나누시다 나를 보시곤 내 손을 꼭 잡으시고 수고했다며 어깨를 다독여 주신다. 또 한번 울음이 터질 것 같다.

오늘은 우리집 문간방에 세들어 사시는 할머니를 바다에 뿌려드렸다. 나를 친손녀 이상으로 아껴주셨던... 문득 어렸을 때 처음으로 할머니께서 우리집으로 이사오시던 날이 생각난다.

“야, 이 애미나이 참 곱게도 생겼네.”

하시며 나를 꼭 안아주셨다. 나는 이상한 말을 쓰고 흰머리에 어쩐지 초라해 보이던 할머니가 서먹서먹해 피하곤 했는데 항상 손에 먹을 걸 쥐어주시며 예뻐하셔서 어느새 부턴가는 어머니보다 더 따르게 되었다. 그렇게 한 식구나 마찬가지로 지내온지 10년이 다 되었다.

가끔 할머니께선 나를 무릎에 앉히시고는 빛바랜 사진 몇 장과 낡은 편지, 수첩을 꺼내어 보여 주시곤 하셨다.

“자 은정아, 이 잘생긴 사내가 우리 철민이 아바이고, 여기 푹망푹망하게 생긴 아이가 우리 철민이야. 어때? 은정아 만큼 이쁘디? 그리고 이 편지는 내가 남한에 와서 철민이 아버지한테 빨리 오라고 쓴 편지인데, 벌써 40년이 넘도록 보내지 못하고 있어. 예고 지금까지 잘 살아있기나 한지...”

할머니께선 언제나 이렇게 말끝을 흐리시고는 뒤돌아 몰래 눈물을 흘려내곤 하셨다. 할머니께선 6·25사변이 일어나 고향인 평양을 버리고 남한으로 오셨는데 그때 남편과 하나뿐인 아들과 헤어지셨다고 한다. 그리고 혼자 몸으로 떠돌아 다니며 안해본 일이 없이 온갖 고생을 다 하시며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 남편과 아들을 만날 날만 손꼽아 기다리며 살아오셨다. 그런 할머니 곁에서 자란 나는 이산가족의 아픔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그렇게 항상 나의 곁에서 지켜주시며 힘이 되주셨던 할머니는 많은 연세에도 건강하게 지내셨다.

하지만 얼마 전인가 한 통의 편지를 받아 보시고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시게 되었다. 그것은 그동안 할머니의 가족 소식을 백방으로 알아 보시던 아버지께서 우연히 기회가 되어 할머니 친척분께 받게 된 편지였다. 그 편지의 내용은 할머니 남편께서 전쟁에 끌려 나갔다 돌아가셨고 아들은 건

강이 안좋은데다 영양실조까지 겹쳐 이미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었다. 그 후 할머니께선 시름시름 앓으시더니 며칠전 돌아다니고 말았다. 눈을 감으시기전 내 손을 꼭 잡으시곤 말씀하셨다.

“은정아. 너는 내 손녀나 마찬가지다. 내 아들놈에게 못 준 정 너에게나마 쏟아 부었는데 비록 우리 철민아버지, 철민이 모두 못보고 눈 감지만 네가 있으니 편하게 눈 감으려다. 이 사진이랑 편지, 수첩 모두 네가 간직하고 있다가 후에 우리나라가 통일되면 내 고향에 가서 우리 철민이 옆에 묻어 주려무나.”

이 말을 듣고 나는 내 볼에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할머니, 안되요. 나중에 통일되면 손잡고 고향에 놀러가자고 약속하셨잖아요. 할머니!”

“그래, 그래야지.”

그렇게 할머니께선 저 하늘로 가셨다. 얼굴엔 미소를 띄운 채...

할머니께선 화장을 부탁하셨다. 바닷물에 몸을 실어 고향 땅에 가보시겠다고. 오늘은 할머니를 바다에 띄워드리는 날이었다. 나는 마음 속으로 기도했다. 할머니께서 부디 하늘 나라에 가서서 아들이랑, 남편이랑 세식구 모여 영원히 행복하시길...

책상 서랍에서 보자기 하나를 꺼내본다. 그 속에는 할머니의 유물인 편지와 사진, 수첩이 들어있다. 쓰다듬어 본다. 할머니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다.

그리고 동시에 할머니의 한과 슬픔도 나의 가슴속에 퍼져

나가는 듯하다. 나는 결심한다. 할머니를 위해 내 손으로, 우리 손으로 하루빨리 통일을 이루겠다고. 말뿐이 아닌 조그마한 실천으로부터 통일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내 눈앞에 끝없이 긴 계단이 보인다. 저 계단을 따라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통일의 문이 보이리라. 지금부터 한 계단, 한 계단 차곡차곡 밟아 나아갈 것이다. 결코 서두르지 않겠다. 조금씩 조금씩 통일의 문을 열기 위한 준비를 해나가며.

“할머니 지켜봐 주세요. 이 은정이가 꼭 할머니 소원 이루어 드리겠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당신을 향해

강 정 희

제주여자상업학교 1학년

하늘은 하나요
흐르는 물줄기는 한 바다를 향해 가건만
우린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마주 바라 보면서도
외면하는 당신은
한 걸음 다가서려면
두 걸음 가버리시는 당신은

이렇게 먼 거리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애타는 마음을
조금이나마 아시는지요

소리높여 부르는 당신의 이름에
아무런 대답없이
무정한 뒷모습만 보이시는 당신은

가슴 어느 한구석에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못한
빈자리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는지요

당신이 차지하셨던 이 빈자리가
이렇게 크게 느껴집은
우린 결국 하나이기 때문이겠지요.

하나이면서도
하나이지 못하고
곁에 두고도
당신의 빈자리만을 느껴야함에
더욱 마음이 아파옵니다.

이 하늘로 올라가서
당신을 만날 수 있다면
저 강물을 따라가서
우리 함께 웃을 수 있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주어야 할지라도
한치의 망설임도, 두려움도
없을 것입니다.

나 지금
당신에게 다가갑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기쁘게 반겨주실 때까지
언제나
당신을 향해 가겠습니다.

보고싶은 큰 할아버지

홍 성 연

도남국민학교 5학년

어제 말하기·듣기 시간에는 ‘가을이면 생각나는 사람’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앉아 있는 순서대로 차례로 일어서서 발표를 했습니다.

전학년 친구가 생각난다는 지애, 돌아가신 아빠가 생각난다는 정아, 모두들 똑똑한 목소리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우리 성연이는 누가 가장 생각나니?”

“네, 저는 큰 할아버지가 가장 생각난답니다. 얼굴도 본 적이 없는 분이지만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보고싶어집니다.”

내 발표가 끝나자 교실 이 구석, 저 구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의 발표가 반 아이들의 예상과는 너무나 빛나간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말하기·듣기 공부가 끝나자마자 내 짝 가영이가 다정하게 물어왔습니다.

“성연아, 왜 하필이면 큰 할아버지가 생각나니? 보고싶은 친구, 선생님 얼마든지 있는데 말이야.”

“글쎄 말이야. 다시는 6·25와 같은 커다란 전쟁이 일어나

면 안 되는데 말이야...”

“애는... 무슨 똥딴지 같은 소릴 하니? 갑자기 왜 6·25 이야기를 꺼내냐고...”

“사실은...”

나는 말끝을 흐리며 교실 문을 나와 운동장을 향했습니다.

그 때, 등 뒤에서 가영이가 나를 부르며 달려왔습니다.

“성연아. 하던 얘기 끝맺음을 해야지. 원 싱겁기도 해라.”

“그래, 가영아.”

가영이와 나는 운동장 끝 긴 의자 위에 걸터 앉았습니다.

“우리 큰 할아버지께서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나라를 구하기 위해 군대에 가셨어. 전투에 참가했다가 그만...”

나는 말끝을 잇지 못하고 먼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성연아, 그랬었구나. 그런 줄도 모르고...”

“지금 큰 할아버지 영혼은 조천읍 신흥리 충혼묘지에 잠 들고 계셔. 워낙 전쟁이 끔찍해서 시신을 찾지 못해 위패만 모시고 있어. 가영아, 왜 우린 이런 아픔을 겪어야만 하니?”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영아, 우리 나라도 이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어. 독일도 하나로 합쳐져서 통일이 되었고, 동구 공산권 국가에도 자유의 물결이 이는데, 왜 우리 나라만은 지금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어.”

“성연아, 오늘 우리 집에 가서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길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자. 어떠니?”

“참 좋은 생각이구나.”

나는 집으로 돌아와 책상앞에 앉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서로의 주

장만 내세우면서 서로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통일을 바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며 내 이웃의 고통을 덜어 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통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선생님의 말씀이 문득 떠오릅니다.

다시는 이 땅에 우리 큰 할아버지와 같은 희생자가 생기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외쳐 봅니다.

큰 할아버지,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세요. 큰 할아버지의 못다 이루신 꿈, 이 조카 손녀 성연이가 꼭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머지않아 조국의 통일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통일의 이름으로

고 영 경

중문중학교 2학년

가을은
혼자 오지 않는다.

북녘 땅의
가을 소식을 가지고
남쪽녘으로 내려온다.

한라산의 단풍도
함부로
물이 들지 않는다.

북녘땅 가을 소식을 듣고서야
비로소
물이든다.

오늘 난
붉게 물든 단풍하나를 땀다.

하얀 손수건으로
깨끗이 닦아서
책갈피 속에 끼워 두었다.

그리고 난
단풍을 들고서
그의 이름을 불러본다.

“통일”

인삼이 많이 나는 개성,
사과로 유명한 황주
압록강과 청천강 사람들...

북녘 동포들의
피땀 흘린 노력에
단풍잎이 이렇게 붉게 물들었을까?

함박눈 뒤에는
풍년이 온다던데...

한라산의 함박눈이여!
올해에도
북녘땅의 겨울 소식을 가지고
평평 내려라.

가슴깊은 곳에 담긴
우리들의 근심을
모두 잊기 위하여
통일의 이름으로...

소녀의 그림

조희자

한림고등학교 1학년

아직 색칠되지 않은 그림과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소녀는 같은 하늘과 바다를
그리고는 고민했습니다.

소녀는
파랑색 빨강색 둘을 나눠
칠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는 파랑색
하나는 빨강색 나눠지기에
소녀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소녀는
다시 까만 연필을 들어
같은 하늘 같은 바다를
그렸습니다.

이번엔 모두 파랑색을 칠해
곰곰히 들여다보다
그 위에 빨강색을 칠했습니다.

소녀는 파랑던 그림이
시커먼 먹구름이 되고 형체도
알아볼 수 없게 되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녀는 시커먼 그림에 두렵고
화가 나 찢어버리고
다시 조금씩 조금씩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번엔 선대신
무궁화 꽃을 그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연분홍빛 꽃잎마다
투명한 이슬을 떨어뜨렸습니다.
소녀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색깔 때문에
고민하지 않겠다고
연분홍빛 꽃을 피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통일이 오면

고 은 희

재릉국민학교 5학년

압록강,
두만강 물은
덜 미안하겠다.
통일이 오면 ...

백두산,
금강산의 구름도
덜 미안하겠다.
통일이 오면 ...

강물도 구름도
자유롭게
다니듯
우리들도
휴전선 넘어
자유롭게 다닐테니까

그날이 오면

고 미 라

서귀여자중학교 3학년

“오늘 우리 쌀을 실은 배가 북한으로 떠납니다.”
오찌렁찌렁한 아침 뉴스가 내 귀를 때린다. 허둥지둥 학교 갈 준비를 하던 내 발걸음은 어느새 텔레비전 앞에 멈추어져 있었다. 의심 반 진심 반으로 뉴스 소식을 듣고 나는 빙그레 소리없이 미소를 지었다. 기억을 되새기며...

국민학교 5학년때 내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짝인 승실이가 있었다. 어렸을때부터 소꿉친구였던 승실이는 5학년때 내 짝궁으로 언제나 나를 기쁘게 했다.

그러던 어느날 미술시간. 선생님의 지도 아래 우리는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좁고 좁은 책상위에 많은 미술 용품들이 가득이나 혼잡해 보였다.

“쿵”

“엄마! 이거 어째?”

책상을 움직이던 승실이가 내 물통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그것도 내 바지위에 말이다. 차가운 물기가 굉장히 기분 나

봤다.

“미라야. 미안...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옷이 젖어서 어떡하냐?”

승실이의 애걸복걸한 용서에도 불구하고 나는 승실이한테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승실이가 싫었다. 내 바지위에 스며드는 차가운 물기 만큼이나...

다음 날 승실이와 나의 책상엔 빨간금이 생겨났다. 물론 일반적으로 내가 그었지만 승실이도 별로 내 행동에 반대하진 않았다. 집에 갈 때도 따로 가고 그렇게 같이 갔던 분식집에도 발길이 끊어졌다. 짝궁이었지만 서로 눈길 한번 주지 않고 하루하루가 지나갔다. 날이 갈수록 승실이의 미소가 보고 싶었지만 그럴 때마다 가운데 빨간 금이 내 생각을 바꾸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도덕시간이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불행히도 두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형제들이 싸우면 가슴 아파하고 학생들이 싸우면 선생님이 가슴 아프듯이 우리나라도 한 형제인 북한과 싸우고 있어서 모든 국민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남한 사이 휴전선이 있죠? 그 선은 오직 우리나라에만 있어서 북한과 우리를 갈라놓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의 책상에도 빨간금이 있는건 아니겠죠?”

선생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내 얼굴은 새빨갳게 물들고 말았다. 내 옆 빨간 금만큼이나... 승실이의 얼굴을 올려다보니 승실이의 얼굴에도 빨간 물감이 번져 있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숙제를 드리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휴전선 빨간금을 없애도록 하는 겁니다. 알았죠?”

“예”

모든 아이들이 우렁차게 대답했지만 승실이와 난 고개를
푹 수그리고 기어가듯 겨우 대답했다.

“저... 승실아, 미안”

나도 모르게 겨우 이 말이 나왔다.

“아니야, 미라야.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지우개를 들고 빨간 금을 지우려고 하는데 그 금이
너무나 세게 그려지고 굵게 그어져 전혀 지워지지 않았다.

“어떡하냐. 승실아, 안 지워져.”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을 했더니,

“괜찮아 미라야, 선생님 말씀대로 빨간금은 우리들이 서서
히 지워나가면 되는거야. 우리들의 숙제로 말이야. 미라야,
우리가 꼭 통일을 이루어 그 금을 없애면 이 금도 없어질거
라고 난 믿어. 우리 그 날이 오면 꼭 같이 이 금 지우자. 어
때?”

승실이의 제안에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승실아, 우리 약속해. 그 날이 오면 어디에 있던 휴
전선과 이 금을 꼭 지우자고...”

우리 둘은 새끼 손가락을 걸었다.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게
말이다.

벌써 5년이 흘렀다. 오늘 아침 뉴스가 내 마음을 매우 흡
족하게 했다. 승실이와 나만의 그날이 다가옴을 느꼈기 때문
이다.

그 날이 오고있다. 서서히 서서히...

사랑하는 복녃 누이에게

강 민 구

대기고등학교 1학년

△ 해가 심하다는 얘길 들었어. 생필품도 부족하다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하다 편지를 써.

우리 함께 서로의 생활과 통일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꾸나.
북한관을 관람했었어. 옷가지, 학용품, 식료품 등을 전시해
놓아 너희생활을 조금은 짐작할 수 있었어. 형편이 어려운
것 같았지. 원론적으로 보면 경제체제와 행정의 차이가 원인
일거야.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근본사고는 분배의 평등을 실
현하자는 것인데, 현실에 적용해 볼때 그것은 태업을 조장하
기 쉽지. 게다가 공산당원은 어디까지나 특수대접을 받지 않
니?

이제 너에게 소개해 줄 이야기는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이란 소설이야. 어느 농장에 영리한 늙은 돼지가 있었어.
그는 친구들이 도살되는 것을 보며, 농장주에게 우리는 희생
양에 불과한 것이라는 생각을 품어. 그리고 그 생각은 닭,
오리, 말, 새에게 전파되고, 결국은 모든 동물이 밤에 모여
회의를 열지. 만장일치로 인간을 쫓아내고 동물들만의 평등
한 세계를 건설하자고 하며 동물왕국을 세우고, 국기, 법도

만들어. 다음날 아침 농장주는 동물들에게 쫓겨나, 그 농장은 동물들의 세상이 된다. 다른 동물보다 영리했던 돼지를 중심으로 그들은 새생활을 시작해. 며칠만에 그들은 노동의 댓가로 풍성한 식사를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지. 바로 그들 내부에서 계급이 생긴거지. 영리한 돼지들은 다른 동물들을 부리기 시작해 차츰 그 강도를 높여, 나중엔 법도 고치고, 풍차사업에 동물들을 강제노역시키지. 게다가 식량 배급도 점점 줄여가 사람의 집에 가는 것이 금기였는데도 그들은 실내생활을 하고 술을 마시지. 그게 오래갈 수 있었겠니?

동물들은 차츰 그것을 눈치채고, 결국엔 돼지를 쫓아낸다. 대강 그런 내용의 소설이란다. 아무리 훌륭한 이론도 현실과 괴리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

누이야. 우리의 통일도 이를 바탕으로 논의돼야 할 거야. 더 효율성을 기해서 민주와 평등을 원칙으로 해서. 하지만 지금은 우선 인적교류가 활성화 돼야 할 거야. 남녘과 북녘은 서로 너무 오랫동안 왕래가 없었어. 서로 대면하고 얘기를 나누고, 거기서 통일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도출해야 하지 않을까?

또한, 경제적인 노력도 병행해야 할 거야. 통독으로 불리는 나라는 5년전만 해도 서독과 동독으로 나뉘었었지만, 그 나라가 통일하는 데는 꾸준한 경제적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지. 우리도 그 전철을 본받아야 해.

마지막으로 통일은 점진적이어야 할 거야. 서로 통일무드를 조성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야. 그간의 시차를 극복하려면 '적응'이 필요하겠지.

우리는 한민족임을 상기하자! 반만년 역사의 배달민족의
후예임을, 통일의 과랑새를 살리는 데 서로 힘을 모으자꾸
나.

남과 북이 서로에게 더욱 의미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너희에게 아름다운 몸짓이 되고 싶다.

통일로 가는 길

통연 95-12-83

발행처 : 통일원 통일연수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TEL. 901-7181

인쇄일 : 1995년 12월 15일

발행일 : 1995년 12월 22일

인쇄처 : 국제교역문화(주) (02)272-6914

<비매품>

